

# 월간 증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1 월호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적인 현상은 전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종말적인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최근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유심히 살필 때, 종말의 긴박성을 더욱 심각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981년을 맞이하는 충현교회가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타(自他)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새해를 맞으면서 당회장 목사님께서서는 향후 10년간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자”라는 표어를 앞세우고 보다 성숙한 전진을 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다.

이 표어는 교회의 속성과 의무를 말하는 구태연하고 공식적인 구호가 아니다. 1981년을 맞이하면서 향후 10년간 충현교회의 지향목표로 내세운 이 표어는 충현교회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표어와 표어에 따른 행동은 교권투쟁과 무사안일주의와 개교회주의의 동굴속에서 아직도 동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영적 각성을 위한 기상나팔이요, 세계속의 모범교회로서 세계를 향한 복음과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선의의 도전인 것이다.

실교의 흥수시대이면서도 말씀이 부재한 한국교회, 하나님 중심주의를 당연한 교리로 내세우면서도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한국교회, 공의와 사랑을 외치면서도 공평과 인자가 사라진 한국교회, 교회와 교인의 숫자는 증가하면서도 영적 열기와 활력은 시들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현교회는 명실공히 천국의 지소요, 충현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붙는 천국시민으로서 성장하기위해 올해부터는 매일저녁 성경을 공부하는 “배우는 교회”로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충현의 성도는 말씀을 배움으로써 얻은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봉사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열매는 봉사로, 봉사는 신앙의 비료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신자는 봉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봉사하는 성도는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식구는 남녀노소, 신앙의 연륜을 막론하고 한가지 이상씩 봉사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하는 교회”로써 성장해 갈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으나, “일하는 충현교회”는 더욱 큰 일, 보다 많은 일을 일층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말씀연구를 통하여 얻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봉사를 통하여 얻은 확신을 우리 속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적 원동력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배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4:2) 말씀을 전파하되, 우리는 복음전파가 금지된 곳까지도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충현교회 안에서는 선교와 전도라는 말이 치장적인 유행어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으로 1980년대의 충현교회는 민족을 복음화하며,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북한과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는 말세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향후 10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충현교회는 필경 충현교회의 5대 목표에도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만 27년간 특별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1980년대의 충현을 “말씀의 영광로”, “사랑과 봉사의 현장”, “세계를 향한 복음의 등대”로 세워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한다. <주간>



##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 제9권 제1호 통권84호

## — 1월호 차례 —

|         |                                       |
|---------|---------------------------------------|
| 권 두 언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주 간 · 2 |
| 이달의말씀   | 감사 할 만한 교회가 됩시다.....김장인 · 4           |
| 당회장목회방향 |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한 해로.....김장인 · 6          |
| 지상특강    | 직분자의 책임.....신성중 · 9                   |

### \* 특집 I / 새해에는 \*

|                   |          |
|-------------------|----------|
| • 할 일이 많아요.....   | 조유라 · 12 |
| • 수가성의 여인처럼.....  | 이상환 · 12 |
| • 말씀안에서 살기를.....  | 김경희 · 13 |
| • 참 자유인으로.....    | 전해정 · 14 |
| • 성장을 위해 최선을..... | 김석원 · 15 |
| • 후배들에게 사랑을.....  | 이병학 · 15 |

### \* 특집 II 1981년의 계획 \*

|                                    |              |
|------------------------------------|--------------|
| • 건축위원회 - 새해에도 정성과 협조를.....        | 김기정 · 24     |
| • 심방위원회 - 움직이는 교회로.....            | 김원남 · 16     |
| • 전도위원회 - 북한선교 · 방송전도 등 확대.....    | 최석주 · 18     |
| • 해외복음선교회 - 80년대 해외선교 종합계획 구상..... | 김영휘 · 21     |
| 좋아하는성구 두려워말라.....                  | 조현명 · 15     |
| 권찰수첩 가정심방에 대한 재인식.....             | 김원남 · 17     |
| 새 교 우 [1월중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 명단..... | 편집실 · 25     |
| 간 증 충현성도님들께 감사할.....               | 임대배 · 25     |
| 편집실칼럼 행복보다는 성결의 삶을.....            | 오태용 · 26     |
| 칼빈주의 기독교강요 저작의 이유.....             | 김하진 · 28     |
| 해외선교 해외선교사 · 선교지 소식.....           | 해외복음선교회 · 30 |
| 교계소식 월간교계뉴스.....                   | 편집실 · 32     |
| 교회소식.....                          | 편집실 · 33     |
| 편집후기.....                          | 편집실 · 38     |

표지설명 / 우리 교회의 장로님 교역자님들이 한자리에 모았다. 지난 1월 5일 단기 교역자 · 장로수련회를 마치고 새로운 한해를 다짐하며.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감사 할 만한 교회가 됩시다

〈살전 1 : 1 - 10〉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1981년 정월 초하룻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 할 만한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는 아들과 딸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아들과 딸을 대하면 마음 가득히 흐뭇한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큰 용기가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자녀들 중에 자라나면서 부모의 자랑감과 부모에게 희망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자랑감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선생의 자랑감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가 생각하며 우리도 자랑감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설립한 교회로 초대교회중 다른 교회보다 역사가 길지도 않았으나 아가야, 마게도나 지방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많은 유익을 끼치고 또한 바울 선생의 자랑감이 되었고 감사할 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도 한국교회중 역사가 긴 교회는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교회로 자라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 할 만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 1.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본문 4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또는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듯이 신자의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 1)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만만하지만 교만하기 쉽고 특정한 사람을 믿는 사람은 내용없는 허수아비로 거만한 사람이 되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동부가 씨앗을 심을 때에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고 믿으며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으면 지팡이를 들고 건너가야 하며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 여리고를 빙글빙글 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 2)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을 느낄 때에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할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서 사랑의 말이 나오며 사랑의 수고와 땀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생기니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따라와 돈을 내놓게 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심방에 전력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을 다한 수고의 효과는 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전도할 때가 온 줄로 압니다. 어려운 시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후손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해야 하겠습니다.

## 3) 소망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내하였습니다.

괴롭고 억울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신 모습을 우러러보고 죽음이 다가 왔을때 우리들이 잘 본



향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이 인내 속에서 택함 받은 증거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꽃이 있는 곳에 향기가 있고 그 향기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중현교회는 택함 받은 성도의 모임이 되어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택한 자의 표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2.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간략하게 7가지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현교인들은 하루 한 사람씩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2) 이적과 기사가 뒤따르는 교회입니다

말로 전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을 받는 이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 3) 생활 자체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얼굴만 보아도, 그들의 가정만 보아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로 곧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 4)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생활에 곤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 5)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중현교회도 올해 3월 초부터는 성경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나 나와도 항상 공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6)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평안할 때에 말씀을 지키는 교회도 좋지만 어렵고 피로할 때에도 더욱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7)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악하고 거스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 내어놓고 믿는 바울 선생님을 따라 갔으며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중현교회가 예수님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 이것이 복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 3.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 전도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부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까?

### 1)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현교회의 신자는 토정비결이나 미신 장가 시집 보내며 날짜를 택하고 사주 보는 것 등의 일체 행동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구습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악습이 우리 중현교인들에게는 없을 줄 압니다.

### 2)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우매한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 3) 충성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에 상과 벌을 준비해 두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순종하든지 안하든지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다만 순종한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선한 길은 꼭 성공될 것을 믿고 충성하는 중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4)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까지 자랐습니다. 건강하거나 젊었거나 항상 내 생명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교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정도로 신앙이 자랐습니다.

##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천국일 군되며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손뎌 자가 없는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실수가 없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어 영육의 풍년을 맞이 합시다.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직장애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평안이 넘치는 천국의 향기를 내뿜는 자랑할 만한 교회로 계속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일하고·전하는 한 해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교회에는 여러가지 별명(別名)이 있다. 그런데 이 별명을 잘 보면 이 안에 교회가 무엇인가하는 답이 있고 또한 교회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하는 교회의 기본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별명은 교회는 목장이며, 학교이며, 병원이고, 훈련소이며, 천국입국을 수속하는 천국대사관도 같다.

먼저 1981년의 목회방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교회의 별명(別名)을 통하여 교회의 변할 수 없는 기본사업과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 등을 먼저 생각하고 싶다.

## 교회는 목장이기에

어린 양들이 잘 자라나야 한다.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영양의 실족이 없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목자들은 전심전력하여 양들을 보살피야 하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 교회는 학교이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배워야 한다. 교역자, 장로를 위시하여 온 교인이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생, 세상, 죄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학교는 가르치는 일이 목적이기에 가르치는 자와 이 가르치는 일에 뒷바라지를 하는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 교회는 병원이기에

생명과 영혼의 치료를 하는 일에 세밀하여야 한다. 병원에서는 치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또한 병에 걸리면 치료에 열심이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단행해야 한다. 이에는 지혜로운 진단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왕진하는 일도 있다. 이 왕진은 마치 심방과도 같다.

목사나 장로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또한

## 교회는 훈련소이기에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훈련은 자신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명령계통이 안된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우리는 교회를 봉사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하는 훈련소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 교회는 천국대사관이기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 갈 입국 수속을 해야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천되는 곳이다. 천국대사관이기에 주님이 명령한 일들을 행하며 준비한다. 그래서 학습, 세례를 베풀고 성찬예식을 행하고 하며 천국에 입국할 준비를 하는 곳이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일을 정리하여 우리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정하여 5대목표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모두가 이 5대목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모두가 애써 왔다.

금년에도 우리가 이 5대목표를 향해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 1. 천국일군 양성

금년에 온 교회가 배우는 교회로서 분위기를 계속 유지했으면 싶다. '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교회에는 없기를 바란다. 천국일군을 키운다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천국일군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자신부터 준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일을 위해 금년 3월부터는 교육위원회의 성경학원이 주관하여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실시하려고 한다.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키워나가는 일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 2. 북한선교

그동안 북한선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면으로 비난하고 비웃기도 했지만 이제는 북한선교를 어느정도 이해한 정도까지 온 것 같다 감사한 일이다. 금년에는 홍콩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선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현재 홍콩만목 사님이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한 분을 더 보낼 계획이다. 이 홍콩은 마카오와 계속 연결을 가질 것이다 마카오에는 중국사람으로 영국시민권을 가진 영업택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홍콩에 성경을 보내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말에 북한선교회 합창단을 조직하였다. 이 합창단의 육성도 금년에 할 일 중에 하나이다.

또 계속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과 차량선교 사업을 전도위원회의 북한선교분과를 통해 해 나갈 것이다. 금년에 특히 전도위원회산하에 북한선교 분과를 설치해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민족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위해 우리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산 업전도, 농어촌전도, 지교회설립, 차량전도, 군인전도등에 더욱 힘쓰는 해가 될 것이다.

특히 군인전도는 여러모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각 교파 초월하면 일반교회 가람 되는데 군목 240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원이 없으니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목이 없게 된다. 반면에 군승(軍僧)이나 캐토릭의 신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가 군목 240명

을 돌보지 못하면 나라 까먹고 내 교회 깎아먹는 썩어빠진 한국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힘 닿는데까지 군인전도에 힘쓸 것이다.

또한 우리교회의 교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예수 믿으시다'라는 한 미디의 말이라도 꼭 전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전도위원회에서 계획하며 수고할 줄로 안다.

## 4. 세계선교

지금 우리교회에서는 9개 나라에 열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선교사, 홍콩에 홍종만선교사, 일본에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독일에 육호기선교사, 박용삼 평신도선교사, 호주에 김태현선교사, 이집트에 이준교선교사, 인도에 엘리야젤산선교사, 아르헨티나에 백성룡 선교사, 파라과이에 김재창선교사)

금년에도 선교지를 계속 확장, 2월초에 유재일목사를 남미의 칠레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남미 볼리비아에도 한 명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가능한한 해외에 선교사 파송을 계속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선교사로 나가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 현지인 선교를 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나고 비난들을 한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물론 모든 준비를 갖추어 보내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런 준비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 우선 나가서 한국인을 중심으로 전도하며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고 하여 한국인들의 신앙이 진보되어 주위의 현지인들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현지인 교회에게도 좋은 각성제가 될 때 우리는 현지

인에게도 전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로는 해외선교분야에 대해 초보를 딛는 어린이와 같은 상황이기때 앞으로 50여년이 지나야 그와같은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좋은 예로 인도네시아의 서만수선교사의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간지 10여년이 지나니 이제 현지인 17명을 훈련시켜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전도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해마다 이 선교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선교사업이 우리교회 새성전 건축하는 일보다 뒤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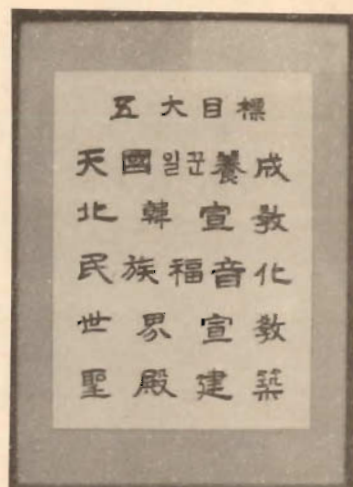
## 5. 새성전 건축

새성전 건축관계는 이미 여러번 건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기회가 생기는데로 보고를 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내년 12월까지의 골조공사가 끝나게 된다. 여기는 그동안 제외했던 선교센터 골조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21억인데, 이외에 5억정도가 더 들어오면 6,7월경부터 내부공사를 시작하여 그 중 지하실과 화장실의 내부공사가 마쳐지면 새성전으로 이사할 수 있지 않을까 계획중이다. 우선 지하차고가 4천여평 되니까 그곳을 이용한다 해도 이사를 나가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1983년쯤 되면 목회 청사진을 내 놓을까 한다.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후에 어떻게 지낼 것인지, 앞으로 우리교회가 더 나아가야 할 점들을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은 계속 해외여행을 하며 좀 더 배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려고 한다. 금년에는 구라파 방면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도 우리교회의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데 전심전력하여 우리 믿음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 • 충현교회 표어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배우는 교회
- 일하는 교회
- 전하는 교회

〈1981 - 1990〉





## 직분자의 책임

신 성 종 목사

(영지대 교목실장·본교회 협동목사)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자를 임명하게 된다.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무엇일까를 하나 하나 살펴 보면서 직분자의 사명을 검토해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어떤 사람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하는가  
둘째,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셋째, 주의 종들이 받을 상급, 곧 주의 종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나 선지자, 신약시대에는 사도들, 오늘날에는 목사님과 같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을 가르켜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른다.

본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헌신된 경배자'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넓은 의미로 이야기 하려고 한다.

넓은 의미로 주의 종이란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목사를 비롯한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등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 주의 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주의 종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주의 종들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종에게는 배가지 없는 것이 있었다. 첫째로 종은 재산이 없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주인의 것이다. 그래서 종은 재산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종은 자녀가

없다. 아무리 자기가 낳았다해도 그것은 자기의 자녀가 아니고 주인의 재산목록에 들어 가는 것이다. 셋째로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다.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다. 다만 그는 주인이 원하시는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 뿐이다. 넷째로 종은 자기의 생명도 없다. 종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종에게는 자신의 재산, 자녀, 의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며 내 생각이라고 내 세울 것이 없으며 내 생명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인 것이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재산을 잠시 맡고 있을 뿐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 주신 자녀를 기를 뿐이고, 주님의 명령만 순종하는 종일 뿐이고, 또 내 생명도 주님이 바치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 2. 주의 종이 할 일

#### 1) 외치는 일이다

이사야서 40장6절을 보게 되면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 「침묵은 금」이니까 침묵하라고 이야기한다. 특별히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있어서 많은 지성인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회주의자의 소치일 뿐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외치라, 힘써서 외치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외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파숫군들이다. 이 민족을 위한 파숫군들이다. 그러니 파숫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파숫군의 사

오늘날 주의 종들은 영적인 면에서 민족의 지도자이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도자의 시야가 좁으면 뒤에 오는 사람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두 사람이 다 함정에 빠지거나 언덕에서 떨어져 죽고야 만다. 높은 산에 올라가 시야가 넓어 환상과 비전이 있어야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가 있다.

명을 크게 두가지로 말하고 있다. 에스겔 33장 7 절에 보면 파숫군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둘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민족에게 경고를 하고 교회에, 불신자에게 경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파숫군으로, 이 시대의 파숫군으로 외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사야 40장 6, 7 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음'을 외치라고 나와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인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인생이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 명예, 지식은 잠시 잠깐 뿐이고 얼마후면 그 무성하던 풀들이 가을 서리 맞고 눈이 오기 전에 다 시들어 없어지듯이 이 세상의 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오직 영원한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만이 영원한 것임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삶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치라'는 말의 내용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2 가지로 대답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앞날은 암담하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 복음화 되느냐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을 수도 어두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민족이 복음화되는 길밖에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또 세계에 복

음을 전해야 한다.

## 2)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이다

이사야 40장 9 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다. 낮은 산도 아니고 높은 산이라고 했다. 왜 하필이면 높은 산이라고 했나? 거기에는 3 가지 뜻이 있다. 첫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멀리까지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영적인 면에서 민족의 지도자이다. 비전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도자들의 시야가 좁으면 뒤에 오는 사람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두 사람이 다 함정에 빠지거나 언덕에서 떨어져 죽고야 만다. 높은 곳에 올라가 시야가 넓어 환상과 비전이 있어야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가 있다.

둘째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야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있다.

세째로 하나님을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새창송가 324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으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바로 이 찬송이 왜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물욕에 잔뜩 얽매어 있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를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높은 산에 오르려면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성급하게 뛰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일은 은혜받는 날이고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



어야 월요일부터 잘 생활할 수가 있다.

### 3)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여야 한다.

오늘 주의 종들이 할 일은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하여 여러번 가르쳐 주셨다. 특히 요한복음 10장에는 네 종류의 목자가 나온다.

첫째는 절도며 강도타입의 목자가 있다.

교인들을 먹이는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양떼들의 젖을 짜까, 어떻게 하면 양떼들의 털을 깎아서 수지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까. 이런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절도며 강도타입의 목자가 세상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둘째는 무관심한 목자가 있다.

그래서 교인들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만 생각하는 목자다.

세째는 삼꾼 타입의 목자가 있다.

교인들을 소명감없이 돌보며 자기에게 손해나 위험이 올 때에는 피하고, 도망을 가고 그저 월급쟁이 같이 하는 목자들도 있다.

네째는 선한 목자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상이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양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양들을 위해 애써 기도하는 그런 목자를 말한다.

이 세상에는 양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목자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목자들이 있다. 우선 그 목장 전체를 돌보아야 하는 목사라고 하는 목자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아 주고 시종드는 전도사가 있고,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며 교회의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장로, 권사, 집사 등이 있고 각 구역을 돌보는 권찰, 또한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다. 이들을 다 넓은 의미에서 목자라고 한다.

만약 이들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치 못하면 교회는 정지하고 만다. 마치 큰 공장에 나사 하나가 빠져 공장이 정지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주의 종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충성할 것밖에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다. 힘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책임 감당 못할까봐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열심을 내어 맡겨 준일에 힘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충성이다.

### 3. 주의 종들이 받을 상급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라고 했다. 분명히 주의 종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두가지 상급이 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첫번째 축복은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라고 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는 기쁨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세번째로 종들이 받을 상급은 요한계시록 2장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주의 종들이라는 말은 목사, 장로, 전도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평신도들까지 다 주의 종들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할 뿐이다.

(\*)

####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상할 만한 성구

-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 : 2>
-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 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 지어다. <마25 : 21>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2 : 10하>

## 새해엔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새해를 맞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가지 적어요. 새해에는 꼭 실천할 것을 결심 하면서요.

첫째, 저는 부모님 덕분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이지만 성경읽기는 가끔 못 읽은 때가 있어요. 새해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겠어요.

둘째, 저는 학교공부가 우수하다고 싶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방송국 (MBC 텔레비전) 링계를 댈 수 있지만, 새해에는 뒤떨어진 공부를 회복하고 더 좋은 성적을 위해 힘쓰겠어요.

세째, 저는 목표를 세우고 하지 않은, 게으르기도 했어요. 새해에는 피아노치는 시간도 다 치고 독서하는 것도 더 많이 하겠



어요.

네째, 저는 금년에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친 때도 있어서 부끄러워요. 새해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귀염둥이 딸이 되겠어요.

다섯째, 저는 동생을 좋아하면 서도 작은 일로 다툰 때가 있어요. 새해에는 동생에게 더 친절하고 자랑스런 누나가 꼭 되고 싶어요.

저는 금년에 가끔 잘못해서 꾸지람을 들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바(조선군 장로)가 성경말씀으로 타이르며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도 기도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 유 라 (초등부 4학년)



## 수가성(城)의 전도자처럼

새해 새 아침에 큰 광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때와 기한을 두시고 우주질서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

다. 주후 1980년대의 진통스런 분기점(分岐點)위에 서서 영육간에 환난 날을 맞이한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도 주님 주신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의 Nit-영광스런 하늘의 뜻을 향하여 충진군하는 충현의 모든 식구가 됐으면 싶다.

새해에는-사마리아 수가성(城)의 전도자처럼 살고 싶다.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던 주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시고 그 동리의 부정한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하여 정오의 피약벌 아래 물 길러 나왔을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시고 그 지역의 전도자로 삼으신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을 상고하면서 주님 만난 기쁨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전도자로서 살겠다고 다짐해 본다.

1. 주님 만난 기쁨 확신하며 살겠다(요 4:19)

우물은 일찍이 남녀가 만나는 장소였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쳐 그 아내 레아와 라헬을, 이삭이 그의 종을 통하여 아내 리브가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은 바로 우물가였다. 예수님의 영적 말씀과는 달리 가시적(可視的)이고 육신적인 사실만을 구하던 이 여인은 여섯 남편을 불러 오라 하시는 조용한 주님의 책망 앞에서 참 신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다. 목마른 자들이 시냇물을 찾듯 오늘날도 갈급한 영혼이 주님 말씀이 계신 교회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옛새동안 세상 남편 향하여 살다가 주일날만 주님 만나는 기회적인 교인이 아니라 참 신랑 만난 기쁨에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 확신 가운데 살겠다.

2.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요 4:24)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면 동



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며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사1:10-14)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도 분명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녀 역시 종교의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선배처럼 이곳이나 저곳이 아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면서, 새해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

3.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겠다.(요4:29)

참으로 우물가의 여인은 절절한 영적 상태에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물질, 권세, 재물, 명예의 남편들을 섭렵(涉歷)하면서도 궁극적인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 여인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4:26) 하시

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 과거의 모든 수치와 허물도 잊은 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4:29)하고 외치는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니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며,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쁨으로 상속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종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의 고난 내 대신 받으시고 경건치도 못한 자를 의(義)롭다 하시기 위하여

삼일만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공덕을 찬양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고, “내 양을 먹이라”(요21:17)고 명(命)하심 따라 새해에는 사마리아 지경(地境)의 수가성(城)에 살던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인처럼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작은 전도자로서 살겠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엡6: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상 환 <고등부교사>



##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래 시답지 못한 이들의 공통구호가 있는듯(?) 싶다-「벼르다가 마는」-즉 “이번엔” “다음번엔” “새해에는”..... 등등으로, 그러면서도 새해에는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눅12:56)

주님의 음성이 잔잔히, 그러나 무섭도록 마음의 고막을 때린다. 점점 더욱.

「내가 진리를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

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2:15)

주님! 진정 말씀대로 되어서 걸 원합니다-새해에는!

내 아들 광석이가 엄마인 나에게 호통(?)치는 말이 있다. 부끄럽지만 종종.

“엄마 밤낮(?) 늦게만 와?”

“미안해, 광석아.”

“엄마, 아직 대낮이야 어떻게 벌써 왔어?”

“응, 조퇴(?)하고 막 달려왔지”

—이것이 81년도의 엄마의 꿈이다.

## 새해에는...

##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새해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나님의 음성을 조심스럽게 되새기며 서 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

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다」(고전 9:24~27)

김 경 희 <대학부교사>



### 참 자유인으로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이 다짐을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며 느끼는 감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더 열심히 살 것 하는 후회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감정인 것 같다.

그러나 또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는 것이 아무런 결심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자위아래 새해에는 좀 더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한다.

이제까지 너무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얽매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사물의 진실에서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한 것 같다. 새해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올바르게 서며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며 모든 관계의 핵심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참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새해에는 또 우리가 너

무도 쉽게, 습관적으로 사용해 오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란 명제만을 뇌일 것이 아니라, 사랑 하고픈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먼저 사랑하고 더 오래 사랑해 주는 사랑의 기능공이 되고 싶다. 참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싶다.

또 새해엔 축복받기만을 원했던 나에게 고난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는 나로, 새해엔 새해엔 하는 다짐 없이도 매일매일을 철저하게 좌절하고, 철저하게 부정하고, 철저하게 새로워지는 참 용기 있는 나로 살아가고 싶다.

천 혜 정 <유치부 교사>

### 성장을 위해 최선

새해(新年)에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대 한다.

1980년은 80년대를 시작하는 해이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으로서 첫해를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해가 되리라 본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보다 선명하고 그 실천력이 강해야 되리라 본다.

누구에게나 삶의 시작은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삶도 80년대를 시작하면서 먼저 정리가 되어지는 것은 욕기 8:7에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다.

구체적인 나의 목표와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청사진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설계도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한다.

첫째, 말씀 중심의 설계도이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활력있는 영적성장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을 기도해 본다.



둘째, 하나님 제일주의 설계도이다.

교역자의 생활표준은 하나님 제일주의여야 하겠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생활이 계속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이상의 설계도를 그려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길을 축복 하시리라 믿는 것이다. 지금까지 충현교회에서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영적인 힘을 더욱 배양하고, 목회자요 청지기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키워 가며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끝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한 생애, 바르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러져 온 생애에 주님의 참 제자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김 석 원 목사

(장년 새신자부지도)



## 후배들에게 사랑을 나누주며

새해 설계를 그려보기 전에 충현제단에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거쳐 귀한 성직인 장로의 직분을 맡기까지 지난 23년간의 나의 신앙생활을 회고해 보니 하나님과 사람앞에서 받은 사랑

그리고 여러 선·후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던 지난날들의 우리교회 환경이 한없이 그림겨진다.

지금 충현제단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그때와

같이 교역자나 장로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옛날 같이 장로님들이 자라나는 학생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졌고 교회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주일학교교사나 성가대원들에게 동역자로서 격려하며 도와주기 보다는 교회행정과 감독이란 직무를 수행하다보니 거리감이 생기는 않았을까.

금년부터 나는 주안에서 받았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의 빛이 되어 힘껏 도와줄 수 있는 선배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또한 여러부서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의 참이웃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도와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병 학 장로

(건축위원회 회계)

## 두려워 하지 말라

조 현 명 장로 (출판국장)



주일학교에 봉직하면서 천국 임금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같은 큰 신앙의 사람, 용사,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三、「항상 기뻐하라」(살전 5:16)  
과거 신자들이 당하는 핍박과 곤고와 슬픔과 죽음의 속 깊이에는 언제나 마를 줄 모르는 기쁨의 샘물이 솟았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교훈도 자연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손으로 너를 볼들리라」(이사야 41:10)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면 무엇이 두려워 하겠읍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은 우리들에게 매일 같이 용기를 주시고자 하신 줄로 믿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백한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二、「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들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 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여호수아 14:10-11)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 내가 좋아하는 성구 □  
一、「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 움직이는 교회로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1980년도 지난 1년도 구역운동을 위해 충성스럽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모든 구역원들—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1년도 심방위원회는 본 교회 1980년대 표어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자」는 표어 아래 전 교인을 움직여 활동하는 면에서 심방위원회를 운영코자 한다.

즉 배우는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배우도록 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점에서도 좀 더 희생적인 봉사가 있어야 하겠고, 전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열심있는 전도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1981년도에는 본 심방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심방분과, 인사분과, 교육분과, 통제분과 외에 확장분과를 새로 신설하여 각 분과별 활동을 강화하며 심방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할 뿐 아니라 각 가정의 요구에 따라 직접 심방을 가게 되었고 각 구역담당 목사님들도 각 구역 특별한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 심방 위원장으로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1. 구역 운영방안

### 1) 5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구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눈 이유의 하나도 역시 신속하고 능률적이며 활기찬 심방을 하기 위함이다. 종전에는 5개 구역이어서 한 담당 교역자가 맡은 세대수가 700세대 내지 800세대가 되었으나 1981년에는 500~600세대를 담당하게 된다.

### 2) 연 3~4회 구역권찰 교육

구역권사, 권찰에게 교육을 실시 하는데 있어서 단기수련회 시 교육이 있고 또 연 3회에서 4회, 금요일 오전 10시 지구별 실무교육훈련이 있다.

이 교육훈련은 주로 실무자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주시할 것이다.

### 3) 구역 확장원 운영

확장원들도 연 3회 내지 4회 지구별 교육훈련이

있다. 이 교육 중심은 종전에 심방을 받기만 하던 이들이 이제 열집과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심방하고 또한 매년 1세대 이상을 전도하여 구역원을 확장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 4) 대심방

1년에 1회, 한 지역을 반으로 나누어 봄(3월~5월)과 가을(9월~11월)에 심방을 한다.

#### ① 심방방법

종전의 심방방법으로는 많은 시간을 집을 찾는데 소모했으며 또 심방을 가더라도 못만나고 돌아오기도 하여 시간과 정신과 경제면에서 손해가 많았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종전의 구두요청 심방을 가급적 본 심방위원회에서 마련한 심방 청원서를 사용함으로 그 요청서에 응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심방 위원장의 심방을 원할 때는 곧 응하기로 하였다.

## 2. 구역임원 활동

### 1) 구역장

구역장은 행정급 금요일 성경공부를 담당, 실시할 것이며 권찰들과 협의하여 구역원들을 수시로 심방한다.

### 2) 구역권찰

매주 금요일 구역원 심방을 하고 유교 가정이 있을 때 신속히 구역장이나 구역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하며 구역 예배에 구역원들이 많이 나오도록 권장한다. 특별히 구역원들도 전도할 것을 권장한다.

### 3) 구역 확장원

① 확장원들은 이웃집과 연대적인 유대를 가지고 시시로 돌아보며 권면, 협력하고 매주 토요일은 이웃(연대 관계 확장원)을 찾아가 주일을 꼭 지킬 것과 1년에 1세대 이상 전도할 것을 격려한다.

② 확장원은 1년에 한 세대 이상 전도하여 확장시키는데 전력한다.

## 3. 구역요원들이 주력할 사항



이렇게 모든 구역 권찰들이나 온 교인들이 움직이는(활동) 교회가 되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와야 하겠다. 이렇게 부흥을 가져오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역자나 구역장, 권사, 권찰들이 다음 몇가지 일에 주력해 주어야 하겠다.

1) 자신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알며 겸손한 자세를 찾자. 주장하는 자세는 없어야 하고 겸손하며 타인의 발을 씻기는 수고를 아끼지 말자.

2) 항상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령한 면에 은혜가 풍성해져야 하겠다. 그리하여 대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향기를 발하도록 하자.

3)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연구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지기를 힘쓰자. 그리하여 언제,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든지 풍성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겠다.

4)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실천, 봉사생활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5)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결되어 나타나는 단결력으로 맡은 일에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으며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고 도와 주어야 하겠다.

## □ 권찰수첩 □

### 가정 심방에 대한 재인식(4)

오순절 성령강림 직후 일어났던 사실을 살펴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힘쓰며 필요한대로 나누어 주며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가정심방의 참된 의의가 어디 있느냐 할때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1981년도 심방위원회의 모든 계획과 운영을 「움직이는 교회」라는 목표아래 두고 있습니다. 일찍요 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과 같이 '네가 살았다'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입니다.

심방은 그 가정식구들로 하여금 힘이 없는 자리에서 새 힘을 얻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가정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절망중에 허덕이던 가정에 새 소망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동적인 가정이 되는데 있어 가정심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중현교회 교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의 중현교회 교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한 달란트 주인에게서 받은 자와 같이 수전에 싸 두지 말고 그 말씀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활용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자신의 변화를 위해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그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품도 변화되어야 겠으며 자신을 발견하여 부족한 것을 회개하여 새 사람, 새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썩어 없어질 자기 육덩어리를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들의 신앙을 위하여 전도자의 입장, 심방자의 입장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 말씀의 지식은 있으나 병어리 되어있고 발이 불구가 되어 있고 손이 말라 있는 자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까. 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기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족해 주고 싸매어 주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 발로는 열심히 이집 저집 다니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집 저집 다니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의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룩한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귀한 입설, 우리 성도들의 손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 우리 성도들의 발이 이집 저집, 이곳 저곳을 다니며 말씀주는 거룩한 발이 되십시오. 1981년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움직이는 교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에는 큰 부흥, 이웃에는 구원의 기쁨, 지역사회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발전의 축복, 자신과 가정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충만하여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 □ 특집 / 1981년의 계획—전도위원회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를 우리교회의 1980년대 표어로 정하고 힘써 나감에 따라 「전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내외의 전도의 총 사령탑인 전도위원회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해는 전도위원장의 빈번한 교체로 그 기능이

북한선교분과를 설치하여 이 일을 좀 더 책임있고 힘있게 전개하려고 한다. 우리 교회의 5대목표중에 하나인 북한선교사업을 이제 우리교회의 기본사업으로 삼고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차량선교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앞으로 우리교회에서 실행할 북한선교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을 할 것이다.

# 북한선교·방송전도등 확대

— 전 교인의 전도훈련도 포함 —



최 석 주 장로

(전도위원회 위원장)

활성화되지 못했던 아쉬웠던 면이 있었다. 그러나 전도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사명을 감당기 위해 전도위원 모두가 힘을 다해 이 수고를 감당하려고 한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도위원회는 몇개의 분과를 두고 전도전략과 계획을 수립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이미 독자가 주지하고 있는대로 전도위원회는 전도 전체 전도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 분석 보고하는 기획분과와 국내전도에 관한 제반 사무를 실천하는 내지분과, 한국을 벗어난 전도 및 선교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외지분과와, 본 교회 교인을 전도하는 교인 전도하는 교회로 육성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동원분과 그리고 특수집단 전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고 전략 계획을 실천하는 특수분과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북한선교분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새해의 전도위원회의 특징은 그동안 전담기구가 없던 북한선교사업을 전도위원회 사업으로 하고 북한선교분과를 설치한 점과 특수분과의 전도에 중점을 두며 전교인의 전도요원화를 위한 노력과 방송전도의 확대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제 1981년도의 전도위원회의 기본계획을 생각해 보자

## 1. 조직의 확대—북한선교분과 설치

지난해까지 교회내의 어느 부서에 소속되지 않고 일해온 북한선교사업을 금년에는 전도위원회 산하에

## 2. 특수전도에 중점

전도위원회의 업무중 하나인 특수전도를 더욱 강화하여 각 분야의 전도를 보다 전문화 할 방침이다.

그래서 각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군전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군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3. 방송전도 확대

그동안 우리교회는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대북·대중공방송등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해는 아세아방송국을 통해 주 2회 방송전도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기독교 방송국을 추가하여 방송전도에 힘을 계획이다.

## 4. 전교인의 전도훈련

앞으로 우리교회 교인은 모두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인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민족복음화를 우리교회의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먼저 우리 모두가 전도인으로 주위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되어 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도위원회의 총동원분과에서 이를 기획 금년에도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5. 각 분과의 장단기 계획

|        | 단기 계획                      | 장기 계획                                 |
|--------|----------------------------|---------------------------------------|
| 기획분과   | 전도위업무체계화(기능화)<br>전도 정책연구   | 정책수립, 조사, 평가                          |
| 내지분과   | 개척교회들 지역거점화<br>기도처형성       | 농어촌현지지도자 훈련양성                         |
| 외지분과   | 현지실정 명확히 파악, 개선            | 현지인선교·선교정책 확립                         |
| 총동원분과  | 각종 전도활동조직 개발·전도열고취·전도학교    | 전도지향형 교회                              |
| 특수분과   | 산업·군·병원·교도소·학원을 구분하여 업무체계화 |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 특수성에 따른 접근법의 다양성연구   |
| 북한선교분과 | 차량선교<br>차량전 도대원 모집교육       | 북한선교지역 활성화(전국지부조직확대)<br>특별대원 모집·훈련·양성 |

물론 이외에도 계속적인 개척교회 지원, 또한 해외선교에의 지원등이 있다. 이것은 별도의 난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우리교회의 5대목표로 정한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성전건축, 천국일군양성 중 북한선교, 민족·세계복음화의 3가지가 전도위원회가 주가 되어 해 나아가야 할 과업인 것을 살펴 볼 때 전도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가 일심으로 서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이제 이웃을 위하여, 북한의 내 동포를 위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도와 주는 총현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선교분과 - 금년에 새로 신설

## 차량전도 사업을 정착화

금년에 새로 신설된 분과이지만 우리교회의 5대목표중 하나인 북한선교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북한선교라는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개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 교회는 그동안 북한선교를 위한 차량전도사업등 일을 해 왔기에 금년에도 이 차량전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자

세와 계획으로 일하려고 한다.

### 1. 차량전도사업의 원활화

1주는 나가서 전도하고 1주는 쉬며 정비하여 1년에 25회가량의 차량전도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가능한 전국을 돌고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주님됨을 전하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음을 전하며 저 북녘땅에 있는 내 동포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 중요함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운동·복음운동·기도운동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가는 곳마다 힘있게 외치게 될 것이다.

### 2. 차량전도 대원의 훈련

차량전도는 나가는 대원을 교육, 훈련시키어 동역 전도에 힘을 계획이다. 뜻있는 복음전도 대원을 모집하여 성경공부와 기도, 전도교육을 시켜 1차 2-3명씩 동승하여 동역전도에 힘쓰게 될 것이다. 워낙 큰 일이기엔 운전기사와 메시지 전하는 자 1명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므로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3. 북한선교를 위한 특별전도대원의 훈련

그동안 전국에서 지원한 성도들을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북한선교 훈련원에서 약 2,3주 정도로 강훈련을 시켜 개교회에서는 유능한 전도대원으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날에는 생명 내걸고 이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전도대원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할 계획이다. 이 일에 전국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이 새가져 일에 힘써서 북한선교를 위한 기반확보와 전국 성도의 대대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내실화에 힘써서 이 일이 성공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부탁드리기는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몸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이 많기를 바란다. 이 일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미약하고 보잘 것 없는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참여하고 물질로, 몸으로 이 적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면 현대무기나 현대정치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삼팔선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날이 기필코 올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의 기적을 우리도 낼 수 있는 헌신점에 있음을 명심하자. 이스라엘이 할례하여 성별한 것처럼 회개운동을 일으켜 성결하고, 복음양각나팔 잡고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배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문서로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 견고한 삼팔선이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한다. 다같이 이 대열에서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으로 일하자.

조 준 상 감도사(전도위원회 북한선교분과장)



## 각 분야를 더욱 공고히

전도위원회가 기획 · 외지 · 총동원 · 특수분과 및 군년에 새로 신설된 북한선교분과의 6개분과로 나누어 일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분과가 특수분과라 하겠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속에서 1세기 동안 놀라울게 성장하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개교회 중심이 너무 두드러진 나머지 올바른 전도와 선교에 정립이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또한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회에만 혈안이 되었고 황금어장의 특수 전도지를 잃어버린 것이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본교회에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도분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또한 이 특수분과의 모든사업은 당회장 목사님의 중점 사업의 하나임에 앞으로 더 맹렬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중책의 특수분과가 81년 그 임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기에 이르렀다.

### 1. 군전도

신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엘리트 그룹인 군복음화 60만 젊은이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는 길은 곧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임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줄 안다. 그러나 군은 계급사회라는 특수성이 있는 까닭에 그 구조와 전략을 친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수분과는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 군목의 생활비 지원, 사관학교에 유능한 민간군목을 파송하였고 군종요원 보수교육 및 하사관 복음화 및 무의탁 사병위로회 및 군교회 시설을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 군복단사업 까지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 2. 산업전도

산업전도는 내일의 가장 큰 어장일 것이다. 산업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음전략의 수립이 얼마나 올바른 일인가? 이미 이곳을 다른 교단에서는 23년전부터 여기에 역점을 두었던 사실은 이미 독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이다. 이제는 불교에서까지 여기에 침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은 너무도 시급하고 긴박성이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간

파한 일부 인사들이 기독교를 표방한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면서 노사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사례가 있어 산업전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전도는 기업인 전도와 근로자 전도로 구분해야 될 줄로 안다. 그래서 본 분과에서는 실업인을 실업인에게 전도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과 노사간의 대립은 그리스도의 뜻도 아니며 당사자의 이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고 또한 실업인을 참신하게 훈련하여 교회와 사회에 기여하는 삶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철저히 인식하여 근로자 복음화와 그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케함을 그 방침으로 들 수 있다. 그래서 산업전도의 운영과 산업전도 교육부의 위치가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직장배배 및 성경통신과 운영, 직장전도인 육성 및 파송, 실업인훈련등을 통하여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 3. 병원전도

병원전도는 실효면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지난날 선교사들이 의료선교를 많이 한 것이 역사적으로 뒷받침된다. 우리는 이같은 실효면에서 병원전도를 힘써야 하겠다. 원목파송, 의료인복음화, 환자용 특수 전도지를 발행, 병원노래선교단 활동, 녹음전도등을 한다. 임상전도는 환자와 대면하여 전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문서를 통한 것도 효과적이며 녹음 테이프를 이용하여 방송 청취를 통한 전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4. 구치(교도)소 전도

간힌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뜻이다. 구치소에 전도자를 파송하고 설교와 상담을 하는 것은 저교회운영만큼 보람있고 효과있는 일이다.

현재 어느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다 방송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방송설교와 노래선교가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 소내에서 하고 있는 성경통신과는 성동 교도소만도 60여명이 넘었고 각 교도소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고 있어 드디어 재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전도영화를 겸한 전도집회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 5. 학원전도

내일의 일군이 양성되는 학원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학생전도인을 훈련화하는 일과 현재 사명감 있는 교사를 위한 신앙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

유재일 목사 (전도위원회 특수분과장)



# 80년대 해외선교 종합계획구상

김 영 휘 강도사

(해외복음선교회 · 선교부지도)



80년도에도 국내 · 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선교사업에 대해 여러모로 힘써 주신 국내 · 외 여러 성도님들과 교회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저희 선교사업을 위하여 여러모로 협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며 아울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81년도를 필두로 이제 계속되는 80년대의 선교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다음 몇가지 사항으로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 1. 현지 선교사업

### ① 인도네시아

서만수선교사와 정영옥전도사 내외분께서 80년도 9월부터 근 10년 선교활동을 하신 셈이 된다. 자카르타에 한인교회를 돌보시면서 장글지대 오지의 23 곳을 개척하여 지금까지 현지선교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서선교사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후임자를 속히 선정, 파송하여 서선교사에게 안식년을 드려야 하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문이 제한되고 있는 이 때에 닫혀지기 전에 오지사역의 확장을 총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후속 선교를 위하여 그동안 쌓아 두었던 선교실적을 조사 정리하여 하나의 귀중한 자료로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를 위한 참고로 남겨야 될 것으로 본다.

### ② 홍콩

홍콩만선교사께서 그동안 약 4년동안 홍콩한인교회를 안정 기반으로 구축해 놓으시고, 중공 선교의 기틀을 잘 마련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 홍콩지역의 선교는 본 교회로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곳이며, 앞으로 계속 열려지는 중공을 향하여 대 공산권선교의 전략을 위하여 깊은 연구를 수립해야 될 줄로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속히 중공선교 헌신자들을 홍콩에 계속 파송하여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 ③ 애굽

그동안 이준교선교사께서 현지선교를 위하여 근 1년동안 아랍어 과정을 수학하셨고 이것이 완료된 후면 현지선교의 보다 본격적인 착수가 가능해지리라 고 본다. 애굽선교는 아프리카 지역 선교의 시초요

모델이니 이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기도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이후에도 계속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귀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④ 서독

서독은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 뿌리 박혀온 지역이지만 신학과 신앙의 노선이 잘못 흐르고 있으므로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올바른 노선을 견지하고 선교해야 되는 극히 중대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육호기목사께서 세 군데 한인교회(비스바덴, 하나우, 뷔츠부르크)와 순회예배를 인도 중에 계시며, 이를 통하여 재독 한인 교포들의 신앙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81년부터는 가능한 현지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며, 박용삼 평신도선교사는 81년도에는 박사학위과정이 마쳐지는 대로 귀국하셔서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크게 공헌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부의 선교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되어 해외로부터의 귀한 인재와 일꾼들이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준비작업도 서둘러야 하겠다.

#### ⑤ 호주

김태현목사께서 현재 멜보른 한인교회에서 시무중에 계시고 계속 부흥중에 계시다. 또한 현지인 선교를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신데 호주는 태평양권 선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므로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기대된다고 본다.

#### ⑥ 남미

현재 아르헨티나에 백성룡목사, 파라과이에 김재창목사, 그리고 칠레에 유재일목사를 1월중에 파송하면 남미에 세 분 선교사가 일을 하게 된다.

우선 세 분이 한인교회를 기반 구축으로 하여 현지 선교의 발판을 확고히 굳히는 것이 일단계 선교의 작업이라고 보며, 더욱 나아가서 남미 전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세 지역이 연합하여 가칭 "남미주재 한국선교본부"를 설치한다면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 오리라 본다.

#### ⑦ 일본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내외분께서 일본어를 잘하시므로 현지인들에게 놀라운 선교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원래 선교지역으로 매우 어려운 이 곳에 유선교사의 놀라운 선교활동으로 큰

결과를 가져 왔는데 본부에서는 전보다 더 큰 지원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다.

#### ⑧ 인도

현재 현지인 엘리야겔간선교사가 놀라운 활동을 펴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앞으로 아시아지역중 특히 이곳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선교사업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우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실정으로 보아서는 적은 경비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매월 미화 100불이면 충분하다)본부에서는 가능한 81년도부터 인도지역에 대한 보다 확장된 선교사 파송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 2. 선교재정문제

금년도 해외복음선교회 총예산은 약 7천만원(미화 1십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이 중 본부경비는 최대로 축소하여 1천만원도 미달이며, 거의 전부가 선교 현지를 위한 예산이다. 국내의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한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물질적인 축복이 더 임하실 것을 기도하며, 선교사업을 위하여 국내외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고 보겠다. 아울러 본부에서는 적은 비용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교대상지역을 집중하는 선교가 더 확장되어야 하고 원주민 전도인을 파송하는 베비우스선교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선교행정의 강화

이제 본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한지 13년째 접어들며, 현재 10지역에 11명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본부로서는 그 행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본부의 실무진의 보강 및 선교를 위한 봉사자 참여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② 교회위원회에서의 선교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 및 운영의 강화를 위해서 별도 조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해외송금 및 업무의 집중화와 인력의 집중화를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일인줄 안다.

③ 선교정책을 위한 자료연구 확장사업이 요구된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선교사업을 위해서는 「선



(先)과송, 후(後) 사후처리식'의 선교를 지양하고 사전조사를 위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선교자료 조사가 급선무라고 본다. 이를 위한 연구 분위기와 시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겠다.

#### 4. 선교교육사업

한국교회의 선교의 미래를 위하여 본부에서는 교육과 훈련사업을 계획중에 있다. 후보선교사의 어학 훈련을 위한 지원과 주교 선교부의 후원, 그리고 신년도 부터는 「선교훈련원」을 신설하여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사전 충분한 훈련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는 범교회적으로 그 문호를 넓히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겠다. 또한 「지교회 교역자 혹은 장로 초청 선교훈련」을 실시하여 각 교회가 선교의 구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계획도 수립중에 있다.

#### 5. 해외한인교포교회의 관리 및 지원

본 교회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 자매교회로서 한인 교포교회가 여러 곳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나 지원이 없고 해당되는 몇 사람만 알고 있으며 또 대부분 우리의 기억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상실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차제에 본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해외교포교회의 정확한 리스트가 정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본 교회와의 유대강화 및 상호협력 범위를 분명히 공식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다루는 명확한 부서가 아직 없는 실정인데 금년부터는 이를 취급하는 부서가 공적으로 분명히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6. 새 성전 선교센터 운영 계획

또한 머지않아 완성될 새 성전 선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지금부터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선교센터에 들어가서 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공간배치, 자료실설치, 선교홍보관 및 선교의 제반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공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7. 선교 실무진 해외 선교지 방문계획

현지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 보지 않고 선교한다고 할 수는 없다. 현지 선교지의 상황 파악과 선교사를 사기 양양과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본부의 실무 책임자들이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는 계획을 금년에 수립할 예정이다.

#### 8. 해외의 교회와의 방문인사 교류

선교사업과 부흥과는 해외 교회 특히 미국의 교회와 선교단체의 실무진들과 이곳 본부의 실무진들과 인사 교류 방문하는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하는 모습을 저들도 보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들도 저들의 특히 선교하는 방법과 운영에 대하여 직접 견학한다면 많이 본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8. 해외선교기관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한국교회는 선교역사와 경험이 짧지만 그 열심과 잠재력이 크므로 우리보다 많은 역사와 경험을 가진 해외의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선교단체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교자료와 정보 그리고 훈련 방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9. 해외에 선교스테이션을 건립하는 계획

현재 본부를 한국에 두고 선교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해외에 선교스테이션을 두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부를 한국에만 두는 것보다 이는 다만 명목적인 것으로만 하고, 해외에 선교 스테이션을 두어야 선교정보 및 타 선교기관과의 유대문제에 있어서 원활히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10. 선교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계획

본 교회의 선교사업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선교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질때,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전문화된 선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착수 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선교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해외 연수 계획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며, 이들을 일정기간 훈련시켜 선교본부에 참여시켜서 선교본부 자체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의 모든 잠재력을 이 선교사업에 총집중할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닌지(마24:14)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80년대의 선교 종합계획을 이상과 같이 구상해 보지만 하나님의 각별하신 도움과 성도여러분들과 국내·외의 온 교우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 마지 않는다. (\*)





## 새해에도 정성과 협조를

김 기 정 장로  
(건축위원회 위원장)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피지 아니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학개 1:7-8)

우리들의 (나의) 여생에 또다시 이루어 볼 수 없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또한 온 교회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새성전 건축공을 지난 해 4월에 이룩케 하시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정한대로 순조롭게 지난 연말까지 골조공사의 공정을 진행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배후에서 기도하오, 또한 귀중한 재정으로 헌신봉사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제 1차 공사인 골조공사만은 금년 가을까지 끝내기로 예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예정공사의 약 57%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해동되는 3월 초부터 공사는 계속된다.

금년 이후 계속할 공사의 공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본당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본당은 옥상방수와 지붕의우기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부분을 소개하면,

첫째로, 각 실을 막는 내외부 벽돌쌓기 공사를 하면서 냉난방배관, 전기배관, 스피커, 텔레비전배관, 동시번역시설배관, 무선 마이크공사, 이에 병행해서 외부돌출기기공사 등이다.

둘째로, 건축내장공사, 전기조명, 기구부착공사, 냉난방기계기구설치공사, 그리고 페인트공사로서 본당 건물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셈이다.

셋째로, 본당 규모에 맞추어서 예배용 의자와 강대부분기구와 소강당의 의자와 비품등이 남아 있다.

### 2. 교육관 및 선교센터

교육관이나 선교센터는 일반 사무살이나 기타 건

물과 유사한 관제로 공정상으로는 매우 빨리 끝날 수 있는 건물들입니다. 대략 소개하면,

골조공사와 옥상의 방수공사는 이미 발주가 되어 있으므로

첫째로, 벽돌공사로 내부칸막이와 외부 벽쌓기, 난방배관과 전기배관선, 소방공사, 배관배선등이며 둘째로, 외부창문, 내외부미장, 외부타일공사, 천정공사, 바닥마감공사 등이고

셋째로, 기구부착공사, 페인트공사 등 본당에 비해서 교육관이나 선교센터는 좀 쉬운 공사라고 하겠다.

그리고 본당, 교육관 선교센터 주위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맞추고 가꾸는가 하는 조경공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재정과 기술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께서 관심과 힘겨운 정성을 기울여 오셨다. 금년 81년도에도 계속 기도하시고 좀 더 힘을 기울이시면 예정하였던 골조공사는 물론 제 2차 공사인 내장공사도 착수가 되면서 금년 크리스마스 축하예배와 오는 새해를 새성전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성도 모두 정성을 쏟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치밀한 설계를 작성하고 감독하고 시공하기 위해서 선진 여러 나라의 성전 건축한 실물들을 견학하고 많은 그에 필요한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지난 1월 6일 건축현장 실무진인 오진국 장로, 노광현 장로와 책임 설계기사인 최환집 사 세 분이 약 1개월 예정으로,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기타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자 출발하였다.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현장 설계사무실에서는 앞으로 발주할 제 2차 공사를 대비해서 설계사 6명이 각기 전문분야별로 치밀하게 설계를 계속 보완, 진행하고 있다.

금년 1년 동안도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새해가 되시며 성전건축 하는데에 관심과 정성의 봉사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11월중 새 교우 명단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           |           |           |
|-----------|-----------|-----------|-----------|-----------|
| • 1지구     | 길동구역      | 장미        | 이태원구역     | 안경애       |
| 도봉1구역 이상구 | 도선구역 최경순  | 도곡1구역 김명숙 | 도곡2구역 김정환 | 익수1구역 이난우 |
| 월곡구역 김동화  | 쌍림3구역 김희정 | • 4지구     |           |           |
| 도봉1구역 신춘자 | 쌍림1구역 이매선 | 인현1구역 박종오 |           |           |
| 성북구역 이종락  | 쌍림1구역 이경희 | 회현구역 강영애  |           |           |
| 월곡구역 박향숙  | 중화2구역 이정순 | 팔동3구역 박상철 |           |           |
| 도봉1구역 조준철 | 도선구역 허덕애  | 팔동5구역 최영희 |           |           |
| 도봉1구역 강형득 | 답십리구역 김주환 | 후암구역 조정행  |           |           |
| 동소문구역 김태현 | 장안구역 정순녀  | 신림1구역 오정자 |           |           |
| 도봉3구역 장영환 | 석관구역 김재순  | 상도2구역 양인숙 |           |           |
| 동대문구역 신경진 | • 3지구     | 진영구역 최윤정  |           |           |
| 광희2구역 류인술 | 선정2구역 고옥순 | 용신구역 정홍길  |           |           |
| 보문구역 김석훈  | 화양구역 김윤경  | 인현1구역 임영순 |           |           |
| 삼선구역 서선주  | 화양구역 김복화  | • 5지구     |           |           |
| 삼암1구역 최희순 | 정당2구역 임지현 | 호자구역 이상은  |           |           |
| 삼암3구역 김천희 | 화양구역 김현덕  | 조동구역 박미령  |           |           |
| 송인2구역 김태식 | 보광구역 공석생  | 율지1구역 김종식 |           |           |
| 창신2구역 이진숙 | 논현1구역 김양수 | 중부구역 권태현  |           |           |
| 동소문구역 김덕부 | 심성구역 홍영균  | 목동구역 김동혁  |           |           |
| 미아2구역 김주화 | 목정1구역 임정희 | 화곡3구역 황원실 |           |           |
| 창동구역 박애향  | 목정1구역 이재각 | 구로구역 최동진  |           |           |
| 청량1구역 김임옥 | 강남5구역 천이준 | 구로구역 한공필  |           |           |
| 동송구역 백재홍  | 청구구역 이진원  | 구로구역 정준오  |           |           |
| • 2지구     | 잠실1구역 김정심 | 구로구역 최경석  |           |           |
| 중화1구역 김상미 | 장충4구역 조완희 | 응암1구역 김동원 |           |           |
| 홍인2구역 김병호 | 논현1구역 김영복 | 조동2구역 이초금 |           |           |
| 신당2구역 정혜숙 | 청당2구역 신일순 | 신촌구역 이미경  |           |           |
| 전호구역 조성수  | 잠실2구역 송신자 |           |           |           |
| 도선구역 김길자  |           |           |           |           |

### \* 축하합니다 (11월중 결혼)

- 강재원군(장원준 김민희집사 아들) 1일
- 박해용양(박성환씨 2녀) 3일
- 변양숙양(변병선 박대희씨 딸) 6일
- 정재옥양(계순옥집사 2녀) 6일
- 최유성군(전순자권사 장남) 6일
- 송동일군(화곡구역) 8일
- 김태호군(박종국권사 아들) 8일
- 김동신군(김진영 백진경씨 아들) 10일
- 박태기군과 박정례양 11일
- 임원애양(신당 2구역) 15일
- 박창교군(계삼성가대원) 17일
- 박영안군(진양구역 한정희씨 아들) 17일
- 김민숙양(이영남집사 딸) 25일
- 홍성구군(엄경희집사 아들) 27일
- 이창우군(이진수집사 2남) 28일
- 이상용군과 김정희양(중화구역) 29일
- 이부희양(현정구역 권종순씨 딸) 25일

### \* 위로드립니다 (11월중 별세)

- 이천수씨(서대문 1구역) 3일
- 지용범씨(화곡 1구역 박정철권할 아들) 5일
- 장순실권사(암사구역) 27일

## ◇ 간 중 ◇

## 충현 성도님들께 감사를

임 대 배 (한남구역)

(저는 며칠전 부친상(고임소복례씨)을 당하였으나 충현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하여 저희 집안에 많은 영적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눈 앞의 현실로 나타날 때 그 유족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려운 가정에서의 당혹감은 더욱 클 것이다. 며칠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충현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사를 치루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살아 계실 때 우리 삼남매를 공부시키느라 고생만 하셨던 선친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식처 충현동산에 편히 모실 수 있었던 일이다. 병 들고 가난한 자, 죄 지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던 것이다.

이번 대사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곤란했던 것은 교회를 모르시는 주위 어른들을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전통을 중시하는 어른들의 반대는 참으로 난처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확고한 신앙은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교회의 의식을 좇기로 하셨다.

그리하여 오늘 삼우제를 지내는 자리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예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완강하게 반대하셨던 분들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중에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몰랐던 기독교를 생각하며, 호감을 보이는 등 마음 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이것으로써 집안에 아무런 불화를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원만히 끝내고 나니 생각나는 것은 충현의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였다. 김원남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태규 장로님, 정삼엽, 백죽심 권사님, 이기례, 김춘자 집사님, 그리고 특히 직접 염(麥)을 맡아주셨던 충현교회 성조회의 송기홍, 오정현 집사님께 글로서나마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먼저 가신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충현교회의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 행복보다는 성결의 삶을

오 태 용

새로운 기대 속에 또 한 해를 맞는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금년에는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회심한 후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은 이제 청산이 되어야겠다.

내가 받은 달란트에 이(利)를 하나 더 남기는 발전 없이 주님 앞에 설까 두렵다. 혹시 우리들 중에 신앙의 진보는 주교 교육을 거친 것으로 완료되는 줄 인식하고 있는 이는 없는지.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 또는 교회의 직분이 강화됨에 따라 자기의 신앙도 비례해서 발전하는 양 착각속에 사는 크리스찬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창조적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자녀 되게 해 주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칼빈은 말하였다. 목상할 만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곧 진보하는 신앙은 어느 일정기간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다.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과업이다.

그런 점에서 순종의 생활과 성결의 삶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요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Lordship)을 확신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가.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결의 걸음을 쫓아 왔던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데 미쳤었던가. 하루를 살고 나서 오늘 하루 내게 소득이 있다면 내가 내 허물을 하나 고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한 쪽에 점수를 하나 얻었다고 하는 소득 있는 한 해를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말세에 한 발 다가선 이때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결한 삶을(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더 나은 가치로 삼고 승리하는 한 해로 살기를 기도한다.

## 참 아름 다와라

(새 100장)

참 아름다와라 주님의 세제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듯 저 맑은 새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온 세계 인류가 그렇게도 대망했던 '80년대의 그 첫해가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에게 아쉬움만 남기고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해 '8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무엇인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 딛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왜 이렇게도 오염되어 가고 있을까?

이제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지저분한 세계가 되어 버렸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말이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하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운 백합화를 보고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를 발견하고, 맑은 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별들, 망망한 바다, 늘 푸른 봉우리”가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낸다”(2절)고 찬송하며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또 한편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으며” 이제 “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듯하다”(3절)고 고백하며 충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래 이 찬송을 쓴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신 말트비·데이븐포트·박크(Maltbie Davenport Babcoks) 박사다. 그는 다재 다능한 사람으로 늘 자연과 벗하기를 즐기는 생활을 살았다고 한다.

그는 산으로, 혹은 맑은 시내가 흐르는 냇가로 가서 자연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섭리를 발견하려는 생활속에서 이와같이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겼고 그의 다정한 친구였던 프랭클린 C. 셰파드(Franklin L. Sheppard)가 작곡하여 1915년 주일학교 노래집에 실린 것이 우리에게 까지 전달될 계기가 된 것이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 도서정보 □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충현도서실 안내 —

본 도서실을 이용하시는 열람자들은 다음 몇 가지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입실전 가방은 입구에 맡기십시오.
2. 입실전 성명 및 소속부서를 열람자명부에 기록하십시오.
3. 타교회에서 오신 분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4. 도서열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② 주일: 오전 9시부터 저녁에배 시작 30분전까지
- ③ 매주 월요일은 휴관.

5. 본 도서실 열람자격은 본 교회 남녀 교인으로 중등부 이상의 연령으로 합니다.

6. 도서대출 및 반납시 도서대출카드를 이용하십시오.

- ① 도서대출증 발급시기: 매년 1월, 4월, 7월 (3차례)
- ② 도서대출증을 분실시 그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7.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연체료를 1책 1일당 20원으로 정합니다.

○연도별 도서열람 및 장서통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장서   |
|------|-----|-----|-----|-----|-----|-----|-----|-----|-----|-----|-----|-----|------|------|
| 1973 |     |     |     |     |     |     |     |     | 55  | 148 | 119 | 128 | 450  | 963  |
| 1974 | 131 | 221 | 186 | 104 | 109 | 118 | 130 | 131 | 182 | 180 | 169 | 156 | 1819 | 1161 |
| 1975 | 168 | 129 | 164 | 160 | 181 | 143 | 148 | 155 | 141 | 139 | 143 | 143 | 1814 | 1519 |
| 1976 | 191 | 303 | 213 | 184 | 292 | 300 | 277 | 366 | 463 | 504 | 357 | 360 | 3810 | 2004 |
| 1977 | 367 | 665 | 546 | 437 | 580 | 577 | 554 | 465 | 494 | 531 | 510 | 453 | 6319 | 2666 |
| 1978 | 756 | 539 | 563 | 626 | 478 | 532 | 735 | 736 | 552 | 710 | 552 | 654 | 7458 | 3406 |
| 1979 | 889 | 845 | 775 | 700 | 601 | 424 | 368 | 522 | 612 | 342 | 413 | 350 | 6841 | 3764 |
| 1980 | 430 | 528 | 344 | 307 | 246 | 429 | 437 | 335 | 309 | 331 | 272 | 307 | 4295 | 4147 |
| 총계   |     |     |     |     |     |     |     |     |     |     |     |     |      | 4147 |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  
.....『월간충현』편집실.....

◇ 책 소개 ◇

E. M. 바운더저 유평기 역

내게 구하라

새순출판사 151 페이지 1200원

왜 우리의 생활이 감격이 없을까?

왜 열매가 부족하며, 승리의 생활을 못할까?

이 책의 저자는 단호하게 기도의 부족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무진장한 영적자원이자, 영적무기인 기도를 주셨으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기도하는 일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저자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돼지같은 집단이며 성도의 가치조차도 없다”고 까지 표현 하였다.

저자는 또한 “기도는 훈련받아야 할 영역이며 우리 모두가 기도 하는 일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바쳐야 하며, 경건한 삶도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최상의 일이며 기도는그 어떤 대용물도, 맞설 상대도 없다. 진정 기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군사들이며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군사들이며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이다” 만약 이 책을 읽고도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성도중에 가장 불쌍한 자로서 영적빈곤의 악순환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기도학교에서 훈련을 받고난 후 누가 나에게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을 기대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 여보시오, 나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요”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 종 주 집사 (월간충현편집위원)



# 기독교강요 저작의 이유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e Religionis)는 전 4권 80장으로 엮여져 있으며 무려 50만자에 이르는 신학대저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신학이 집대성 되어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보게 되었는지 그 저작 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려 한다.

## 1. 「기독교 강요」의 저작과 그 출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처음 출판된 것은 그의 나이 27세 되던 해인 1536년 3월이었다. 이때에 출판된 것은 포켓형으로 작은 책이었으며 바젤에 있는 토마스 · 프래터(Thomas platter) 출판사에서 라틴어로 출판하였다. 이 당시는 단권으로 전6장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출판되지 일년내에 매진되는 독자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여기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율법을, 제2장에서는 신조, 제3장에서는 주기도문 제4장에서는 성례(성례와 성찬)에 관해서 쓰고 있다. 이것은 루터의 요리문답 순서대로이다.

그런데 제5장에서는 거짓된 성례에 대해서 썼으며 제6장에서는 기독교자의 자유문제를 다루므로 매우 변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5장에서는 고해, 성직임직식, 입교식, 결혼식 등의 성례성을 논박했고 제6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자유뿐아니라 복음적 사회안에서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논했다.

이러한 칼빈의 태도는 당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항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불란서 왕에 대한 항변이다. 이 당시 칼빈은 26세의 청년이었다. 칼빈은 국왕에게 국민들의 신앙을 존중해줘야 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라도 칼빈은 1539년 「기독교 강요」 제2판을 또 다시 라틴어로 출판하였다. 이때의 것은 초판보다는 훨씬 증보된 것이었다.

제2판에서는 처음 두장의 내용을 완전히 체제를 달리하여 새로 썼던 것이다.

초판 당시 제1장, 율법에 요약되었던 것을 1, 2장으로 구분하여 신자식과 사람의 지식,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유아 세례, 성경의 가치, 성화, 천년왕국 반대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초판에서의 제2장의 내용을 보다 세분하여 회개, 신앙, 창피, 예경, 섭리에 관해서 각 장으로 나누어 썼다. 이때의 제2판은 그로부터 2년후인 1541년 1월에 불란서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것이 당시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읽게 한 동기가 되므로 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란서 의회에서는 1542년 7월 1일 칼빈의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과 불란서 번역판을 다 이단서로 낙인을 찍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읽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543년 제3판이 라틴어로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1545년 불란서어로 번역된 번역판이 다시 출판되었다.

칼빈은 제3판에서도 제2판 때보다 4장이나 증보해서 도합 21장이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출판하는 정열을 보였다. 새로 증보된 네장의 내용을 보면 맹세, 인간의 전망, 교회의 권한, 교회 조직에 관한 것이다.

칼빈은 제4판도 1550년 라틴어로 출판하였고, 다음 해인 1551년에 불란서어 번역판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칼빈은 제4판을 내면서도 약간 증보 수정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각 장에서는 각각 구절로 나누었다. 특히 이때에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증보되었고, 성자승배, 혈상승배에 관한 것을 논박하고 인간 양심을 해설한 것이 증보되었다. 그런데 이 4판은 여러판을 거듭하면서 출판되어 독자들에게 읽혀졌다.

그후 칼빈은 필생의 사업인 「기독교 강요」결정판인 제5판을 출판하였다. 1559년에 라틴어판으로, 1560년에는 불란서 번역판을 각각 출판하였다. 이 결정판은 전4권 80장의 방대한 내용으로 되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편찬한 것으로 초판때 보다는 완전한 내용과 체제를 갖춘 것이다.

칼빈은 제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지식에 관해서 기술하였고, 제2권에서는 그



리스도안에서의 구속주로서 신지식, 제 3 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제 4 권에서는 교회, 은혜의 방편, 국가, 정부의 문제를 논하였다. 이로써 제 5 권은 영원히 기념판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개혁주의 신교의 신학적 대권(Theologica Summa)이라 하겠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살아 생전에도 훌륭한 작품이었으나 그가 떠난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함없는 완벽한 대저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주의의 정통주의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큰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자들이 감히 수정하기 어려운 유일한 신학적 교전으로 남게 되었다.

## 2.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게 된 목적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일까? 칼빈은 1536년 초판 서문에서 불란서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그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이 책을 쓰려고 할때 왕이여 당신의 존전에 드리고자 하는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읍니다. 본인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을 배울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통하여 원하는 바는 불란서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그를 찾기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았는데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 책에서는 교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썼는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포악이 당신의 왕조의 자리에까지 들어 갔으므로 진전한 교리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쓰는 것이 유익하다

고 생각했고 또 당신에게는 이것을 나의 신앙고백으로 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이 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며 칼과 피로써 당신의 왕국을 지금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 교리에 반대하여 심히 노하고 있음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것은 기독교 교리 전체를 일종의 교리 교본으로 간단하게 해명하여 쓰는 것이었다고 보겠다. 그리고 1535년 초에 불란서에 유타 퓌박이 있는 후에 칼빈이 시편 강해 서문에 말한 대로 국민들이 그때 퓌박한 것은 재세례파 교인들과 선동적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퓌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듣고 신앙 변증의 목적에서 책을 쓰려고 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첨가했을 것이다.

1536년판은 새로 개종한 독자들에게 알려 줄 원리들을 쓴 초보적 교리의 요약이었다. 그러나 이 초판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이 초판이 불란서어로 번역되어 나왔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1539년 라틴어 제2판에서는 독자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칼빈은 처음 자신의 목적을 정의하고 수정하였다. 여기서는 개혁주의 교리의 간결한 강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주고자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데 적절한 교리적 서문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1539년 라틴어 제2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의 목적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쉽게 읽도록 해서 성경 이해에 진전이 있도록 하고 지장없이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시키고 가르쳐 주는데 있다. 나는 기독교 전체를 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순서로 요약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교리의 양식을 바로 이해하면 성경에서 스스로 찾아야 할 것과 자신의 목적을 무엇에 관련시켜야 할 것은 쉽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주석의 보충으로, 그리고 그의 교리적 확신을 잘 발전시킬 입문서로 생각했다. 칼빈은 앞으로 독자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성구들과 함께 다시 써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독교 강요」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칼빈은 신학의 특별한 연구에만 몰두하지 않는 많은 독자 대중이 더 알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던 교훈적 목적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불란서어로 번역 출판했다.

1541년 불란서어 번역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으로 독자들이 더 유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사용하는 법을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목적인 바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자신의 지혜의 무한한 보고를 보이교자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아무도 더할 수 없는 완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에 잘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바라는 목적대로 바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은 자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나는 이 책이 너무 자량이 될까 염려하면서도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참으로 잘 이해하는데 열쇠와 입문이 되고 접근케 하는 것이 될 줄을 믿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



# 해외선교사 · 선교지 소식

## 인도네시아 서 만 수 선교사

### 1. 내방인사

① 리마노우여사(오라엔바로라학원 재단 이사장) 예배당 건축 청원 및 선교부와와의 유대 협의차

② 다빈 수꼬요전도사(오지 사역자) 부인 병환 진료를 위하여 본 선교부의 부름 받고 내방.

### 2. 설교 카세트 제작

김창인목사님의 지난 인도네시아 방문시 특별집회를 하신 설교를 카세트로 제작하여 자카르타 한인 성도들에게 배부하였음.

### 3. 오지사역 현황보고

① 판데안지역 - 수꼬요전도사: 장년 2명 결신.

② 골로지역 - 양민전도사: 아동 1명 결신.

③ 위노사리지역 - 산토소 전도사: 장년 1명 결신.

### 4. 비자연장신청 및 영주권 취득 신청중

인도네시아 남방선교의 효과를 위하여 내년 1년 연장하는 비자연장신청과 아울러 현지 종교정책에 의한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청중에 있음.

### \*기도제목\*

1. 비자연장 및 영주권 취득 수속이 잘 진행되도록.
2. 81년도에도 오지사역자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 홍콩 홍종만 선교사

### 1. 내방인사

- ① 중국인 선교실무자 2명 홍콩

방문에 대하여 협의차

- ② 나용찬목사 일행 내방

### 2. 중공선교

① 중공입국자 3명에게 편지, 성경, 찬송가, 선교활동비등을 보냄.

② 선교기관 "중국교회연구센터" 선교보조금 지원

③ 광동성의 가정교회에 녹음기 보냄.

- ④ 마카오교회 유지비 지급

⑤ 만주 목단강시 가정교회 실정 보고받음. (약50명 매주일마다 회집)

⑥ 요녕성 쑤가통의 한 교인으로 부터 국제전화 받음.

- ⑦ 기타 편지 거래

### 3. 수속중이던 교포여권 받음

4. "홍콩생활안내서" 본부에서 우송한것 인수하여 전교민에게 발송함.

5. 홍콩한인교회 후임자문제 협의차 12월 16일~18일 본국에 내방

홍콩현지의 사정상 홍복사님은 더 머무시는 것으로 결정하다.

### \*기도제목\*

1. 중공선교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2. 홍복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 애굽 이준교 선교사

1. 아메리칸 대학 아랍어 과정에서 계속 언어훈련중에 있음.

2. 카이로 한인교회, 헬리오 폴리스 가정교회 및 동산 살람현장 예배 인도중

3. 주 애굽 한국 거류민회 창립준비위원회 참석.

4. 애굽 복음주의 교단 총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교회 지원금 전달

5. 김진숙선교사는 지난 총회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식으로 선교사 사임 승락되다.

### \*기도제목\*

1. 애굽선교의 장래를 위하여
2. 이선교사의 가정을 위하여

## 서독 육호기 선교사

### 1. 비스바덴 한인교회 축호전도 실시

두 주간에 걸쳐 주변 미군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축호전도 실시하여 결신자 3명 얻음.

### 2. 바움홀더 순회예배

비스바덴에서 약 120km 떨어진 바움홀더에서 순회예배를 드린다. 이곳에 많은 교포들이 살고 있지만 교회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

### \*기도제목\*

1. 세 군데 교회에 81년도에도 큰 부흥이 있도록
2. 선교사님 가족의 영·육의 강진을 위하여

## 호주 김태현 선교사

1. 멜보른 한인교회 계속 시무(장년 평균 출석 40명)



2. 선원선교 활동중
3. 여권 연장 신청중
4. 현지 기독교 방송국에서 선교에 대해 인터뷰
5. 한인회 세미나 참석
6. 새 가정(2세대) 등록
7. 본 교회 어린이 콘서트에 참석

#### \*기도제목\*

1.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2. 81년도에도 교회의 계속적인 부흥을 위하여.



〈작년 10월 파라과이에 파송된 김재창선교사의 설교모습〉

### 아르헨티나

#### 백성룡 선교사

1. 목사관 새로 구입함(12월중 이사)
2. 현재 남미는 경제적으로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한인교도들이 수십세대 아르헨티나로 입국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들어 올 추세임.

그러므로 남미선교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본다는 현지보고를 받다.

#### \*기도제목\*

1. 교회의 계속 부흥과 안정을 위하여
2. 백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 파라과이

#### 김재창 선교사

현재 아순손 한인교회에서 시무중

#### \*기도제목\*

1. 81년도에도 교회의 계속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2.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 인도

#### 엘리아 겔간 선교사

현재 인도지역 선교여행중

#### \*기도제목\*

1.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과 인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3. K. E. F의 발전을 위하여

### 일본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1. 새벽기도회 계속 인도
2. 이권사님 부인 성경반 계속 인도.
3. 미국 선교사 브라사선교사 부부 중공 2주간 여행중이며 유선교사님이 계속 말씀 증거하심.
3. 병원전도 및 출장시 전도 계속 중.
4. 1981년도 교회주요사업계획
  - ① 매일 6시 새벽기도 인도
  - ② 교인 배가 운동
  - ③ 부인 성경반 인원 배가운동
  - ④ 주일학교 어린이 배가운동

#### \*기도제목\*

1. 유선교사님 내외분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2. 81년도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도록
3. 별해(別海)에 신흥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서독

#### 박용삼 평신도선교사

1. 계속되어온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제출, 1월말경에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 발표예정이다.

#### \*기도제목\*

1. 강추위의 날씨에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2. 논문연구의 계속 진전을 위하여

### 선교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80년도의 저회 선교사업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81년도에도 계속 후원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별도「선교종합계획」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만불어치 해외지원결의

### 대한성서공회 54차 총회 열어

대한 성서공회는 제54회 정기총회를 열어 김해득 구세군 사령관의 소천으로 공석이 된 회장에 지원상 현재 부회장을 선임했다.

19명 위원중 15인이 참석한 동 총회는 지난 1년간 4천 1백 96만 7천여부의 성경 제작과 52억 3천 6백 22만 3천여원의 결산을 보고했다.

또 지금껏 도움을 받아오던 운영체제를 탈피, 지난해부터 자립, 해외의 성경반포를 위해 4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또 성서공회를 위해 지키는 성서주일 헌금은 총 1천 1백 1교회에서 1천 3백41만 8천 5백 7원이 헌금되었고 81년 예산을 36억 8천 9백 92만 3천 5백원, 그리고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에 5만달러를 보조할 것을 결의했다.

김주병총무는 보고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업활성화방안 논의

### 기독교지도자협 총회

한국 기독교 지도자협의회는 12월 2일 정오 코리아나호텔에서 제 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유호준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동 회의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하자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유호준, 서기 신신복, 회계 이영수, 감사 오경린, 지원상

## 경찰 복음화에 총력

### 교회와 경찰협의회

교회와 경찰협의회 중앙협의회 제 8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새회장에 조문경목사를 선출하고, 한편, 경찰복음화에 공이 큰 경목들을 표창했다.

이날 예배는 장성철부회장의 사회로 경찰복음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기도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강신명목사가 설교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조문경, 부 장성철, 이의호, 민영환, 신신복, 김용도, 총무 박장원, 서기 한영철, 박달용, 회계 김진환, 임인봉, 감사 이장우, 신용균.

## 전국성경고사대회

### 1월15일부터 광주 동명교회당서

제10회 전국성경고사대회가 1월15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동명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전국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경실력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교수요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성경고사 대회에는 총회교육부 발행의 계단공과에서 문제가 출제되며, 참가자격은 각 노회에서 실시한 고사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교육부장관과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들이다.

개교회에서는 개인별 출전자격이 없는 셈이다.

## 제65회 속회 총회

### 의료 선교위원회 조직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5회 속회총회가 80년 11월27일부터 부산 부전교회당에서 회집하여 의료선교위원회 조직과,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조직을 허락했다.

한편 동 총회에서는 군목지원에 전교회가 협조키로 결의했으며, 국경교과서의 진화론 삭제 건의를 문교당국에 제출할 것을 실행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키로 했다.

그리고 은퇴목사나 사고로 지무 불능한 목회자등 피은급 대상자를 위하여 전국 교역자들이 월 사례의 5%를 헌금하여 이들을 돕자는 은급제도 실시를 검토하여 실천키로 했다.

## 남북통일 염원 신년기도회

### 한국보청협회원 1천여명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장년협의회(회장 류시수)는 1월 1일 오후 2시 임진각에서 남북통일염원 신년기도회를 1천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메시지는 황성수목사가 했으며, 북한동포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순서도 가졌다. (원집실)



# 1981년도 임역원 임명

교회는 1981년도 임역원을 지난해 12월 첫주부터 임명했다. 명예권사, 시무권사, 서리집사, 주교교사, 성가대원, 구역권찰요원등을 임명했고 또한 제직회 부서와 당회산하의 1실 2위원 2국 7위원회의 임역원을 임명했다.

1981년에 임명된 자 중 시무권사는 77명, 서리집사 221명(남 77명, 여 144명)으로 1981년도 우리 교회의 제직총수는 1390명(목사 15명, 강도사 5명, 전도사 13명, 공로장로 3명, 명예장로 2명, 협동장로 3명, 명예권사 41명, 시무권사 310명, 서리집사(남) 321명 서리집사(여) 630명)이다.

## 전희문장로—명예장로로

한편 교회는 1981년으로 만 70세가 되는 전희문장로를 명예장로로, 박현모전도사(노년부부지도)를 명예전도사로, 김난옥·김세동·박경복·박호서·이순자·전영화·정불관·홍연봉권사를 명예권사로 추대했다.

지난 1월 4일 주일 저녁 예배시 전희문장로에 대한 명예장로 추대식을 가졌다. 전희문장로는 1964. 12. 1에 협동장로 되신 후 1965년 11월 9일에 시무장로로 취임하신 이래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여 오셨다. 또한 신학교를 마치시고 지교회에서 3년간 시무하시기도 했다.

### 1. 명예장로 / 전희문

### 2. 명예전도사 / 박현모

### 3. 명예권사 / 김난옥 김세동 박경복 박호서 이순자 전영화 정불관 홍연봉

### 4. 시무권사(1981년도 신임) / 강태연 박선부

|     |     |     |     |     |     |
|-----|-----|-----|-----|-----|-----|
| 구정래 | 권명선 | 김명실 | 김반월 | 김분선 | 김선주 |
| 김성숙 | 김성애 | 김수일 | 김숙자 | 김순혜 | 김순이 |
| 김연옥 | 김영숙 | 김영자 | 김용순 | 김윤애 | 김은곤 |
| 김정덕 | 김정환 | 김진만 | 김화춘 | 김희자 | 남일호 |
| 노순경 | 노인덕 | 문선옥 | 박우순 | 박은숙 | 박용녀 |
| 박정서 | 박후봉 | 서상옥 | 손보석 | 신명희 | 신순동 |
| 신정희 | 안순이 | 안순자 | 안정엽 | 양숙란 | 오경옥 |
| 오덕희 | 오봉녀 | 오순탄 | 원형신 | 유만녀 | 유정일 |
| 이귀옥 | 이난숙 | 이부전 | 이순녀 | 이옥현 | 이용점 |
| 이정숙 | 이정희 | 이홍순 | 임선부 | 임순심 | 장순자 |
| 전철금 | 전혜선 | 조기남 | 조기형 | 조상엽 | 전희순 |
| 최금성 | 최병순 | 최봉숙 | 최성도 | 최연주 | 최정숙 |
| 한경옥 | 한동숙 | 허인숙 |     |     |     |



### 5. 남서리집사 (1981년도 신임) / 고문진 고백진

|     |     |     |     |     |     |
|-----|-----|-----|-----|-----|-----|
| 고종봉 | 고현춘 | 권명옥 | 김광식 | 김광울 | 김덕환 |
| 김동안 | 김두원 | 김성학 | 김세하 | 김수일 | 김승근 |
| 김승배 | 김여순 | 김연준 | 김용선 | 김월성 | 김은태 |
| 김재성 | 김정태 | 김정표 | 김철연 | 김한영 | 노경모 |
| 박광석 | 박덕양 | 박미련 | 박봉진 | 박종범 | 박종현 |
| 박찬섭 | 서경준 | 서진율 | 성찬영 | 손영별 | 손정익 |
| 신동석 | 안석현 | 양영태 | 오일우 | 유덕영 | 유도일 |
| 이병옥 | 이부규 | 이성섭 | 이성은 | 이실호 | 이영만 |
| 이인균 | 이장하 | 이재덕 | 이조웅 | 이종식 | 이춘명 |
| 이하영 | 임석래 | 장 철 | 장훈길 | 전만순 | 전완제 |
| 전홍렬 | 정내부 | 정영수 | 정태두 | 조영근 | 조용운 |
| 조증광 | 주영호 | 주진자 | 최만수 | 최지윤 | 표완식 |
| 하두숙 | 홍시호 | 홍홍기 | 황일선 |     |     |

### 6. 여서리집사 (1981년도 신임) / 강동화 강삼선

|     |     |     |     |     |     |
|-----|-----|-----|-----|-----|-----|
| 강순남 | 강순희 | 강정옥 | 공명자 | 곽도윤 | 권영숙 |
| 권종순 | 기윤옥 | 길병임 | 김가연 | 김경희 | 김계희 |
| 김근실 | 김금순 | 김금순 | 김길득 | 김석순 | 김성실 |
| 김수자 | 김순배 | 김순자 | 김승자 | 김업순 | 김영애 |
| 김용자 | 김정숙 | 김정애 | 김정자 | 김현자 | 나태순 |
| 남순덕 | 매귀녀 | 민명식 | 박경자 | 박미애 | 박방연 |
| 박부광 | 박선조 | 박숙엽 | 박순환 | 박신준 | 박옥희 |
| 박익자 | 박정구 | 박종연 | 박정월 | 박창복 | 백순자 |
| 백옥순 | 변경희 | 서학순 | 실옥자 | 성학기 | 손순자 |
| 송준전 | 신갑범 | 신춘자 | 안기신 | 안성걸 | 안춘자 |
| 양명희 | 염미숙 | 염효녀 | 오갑성 | 오인식 | 오화자 |
| 유경아 | 유기영 | 유병옥 | 유순이 | 유정자 | 유재춘 |
| 유채련 | 유후자 | 윤경춘 | 윤성숙 | 윤옥희 | 윤정애 |
| 윤정희 | 이광일 | 이계문 | 이군자 | 이금순 | 이금현 |

|     |     |     |     |     |     |
|-----|-----|-----|-----|-----|-----|
| 이복덕 | 이복희 | 이상희 | 이숙영 | 이순애 | 이순천 |
| 이순희 | 이승희 | 이의순 | 이인숙 | 이인자 | 이정애 |
| 이정애 | 이정혜 | 이종숙 | 이주형 | 이혜영 | 이후덕 |
| 임순애 | 임연희 | 임옥환 | 임태주 | 장성희 | 장영조 |
| 전순옥 | 전영희 | 전정례 | 정경자 | 정명화 | 정순이 |
| 정승희 | 조남오 | 조덕순 | 조두례 | 조옥환 | 조추자 |
| 지지순 | 최상선 | 최선화 | 최순영 | 최영희 | 최정숙 |
| 최정의 | 최정희 | 최재호 | 최창순 | 최태희 | 최화지 |
| 하춘자 | 한경분 | 한구자 | 함봉녀 | 현병애 | 현숙희 |
| 홍문숙 | 황승옥 |     |     |     |     |

### ●제직회 부서●

회 장 / 김창인  
 서 기 / 최상규 부서기 / 강모용 송기홍 최대원  
 회 계 / 최성림  
 구제부장 / 김방진 봉사부장 / 이희원  
 미화부장 / 박옥식 예전부장 / 김한홀

### ●당회 산하 기관●

#### 1) 예배위원회

위원장 / 김창인  
 위 원 / 김하진 윤형철 김기정 윤종순 이동규  
 노광현

#### 2) 전도위원회

위원장 / 최석주 지 도 / 장정일  
 서 기 / 서동석  
 회 계 / 박치민 부회계 / 김구현  
 위 원 / 기획분과 : 김석원 김은호 손동운  
 신영대 김영삼  
 외지분과 : 김영희 한경일 신현상  
 윤인현 현홍식  
 내지분과 : 조준상 이창업 손경수  
 이옥녀 명정옥  
 특수분과 : 유재일  
 산업전도 / 오태희 김천재  
 구치전도 / 김성주 전순자  
 병원전도 / 정관호 이종석 임태주  
 학원전도 / 오해창 안의경  
 군 전 도 / 신표근  
 총동원분과 / 이양우 강순용 최성림  
 조성행 김광신 김연식

### ●해외복음선교회

회 장 / 최석주 부회장 / 한경일

서 기 / 조선근

회 계 / 신현상 부회계 / 김남조 전재룡

실행위원 / 강순용 박치민 이창업 임광식  
 오태희 최성림 이영주 안윤진 이옥녀 전순자  
 유순녀 박순옥 유갑순 이현실 윤인현 남선우  
 김보일 명정옥 문영애 박영엽

### 3) 교육위원회

위원장 / 윤형철

서 기 / 김영개 회 계 / 이용선

위 원 / 김종석 김차생 김의철 윤명식 우기전  
 정하우 이동규 손동운 김은호

총무국장 / 김종석

성경학원 운영분과장 / 이동규

주일학교 운영분과장 / 윤명식

• 새가정부 · 영아부 · 유치부 담당 / 김의철  
 • 어새부 · 유년부 · 초등부 담당 / 김영개  
 • 중등부 · 고등부 담당 / 정하우  
 • 대학부 · 청년부 담당 / 김차생  
 • 장년새신자부 담당 / 손동운  
 • 장년부 · 노년부 담당 / 우기전  
 • 산업전도교육부 · 선교부담당 / 김은호

도서실 운영분과장 / 김의철

장학회 운영분과장 / 김차생

#### ① 어린이 새신자부

지 도 / 김정훈 부 장 / 정운석  
 부지도 / 인정옥 부 감 / 윤광일 명정옥

#### ② 영아부

지 도 / 정소영 부 장 / 이승철  
 부지도 / 부 감 / 최무길 배옥인

#### ③ 유치부

지 도 / 정연희 부 장 / 최상규  
 부지도 / 김정자 부 감 / 이성원 이희수

#### ④ 유년부

지 도 / 안석열 부 장 / 강은원  
 부지도 / 김장근 부 감 / 서동석 김정자

#### ⑤ 초등부

지 도 / 이양우 부 장 / 김영근  
 부지도 / 이상원 부 감 / 오정수 공향조

#### ⑥ 중등부

지 도 / 최봉호 부 장 / 박승준  
 부지도 / 김양래 부 감 / 오정현 문옥순

#### ⑦ 고등부

지 도 / 김남수 부 장 / 김광신  
 부지도 / 유희섭 부 감 / 오해창 심정희



## ⑧ 대학부

지 도 / 허충욱 부 장 / 윤인현  
부지도 / 성주진 부 감 / 김보일 안춘진

## ⑨ 청년부

지 도 / 이승근 부 장 / 하대선  
부지도 / 황명길 부 감 / 송기홍 손명순

## ⑩ 장년새신자부

〈학습반〉

지 도 / 김석원 부 장 / 박인세  
부지도 / 정금숙 부 감 / 이 욱 이명자

〈세례반〉

지 도 / 김창근 부 장 / 박인세  
부지도 / 장영자 부 감 / 김인석 윤재춘

## ⑪ 장년부

지 도 / 김희보 부 장 / 이영세  
부지도 / 부 감 / 최대원 이신일

## ⑫ 노년부

지 도 / 장정일 부 장 / 강모용  
부지도 / 윤용규 부 감 / 엄필성 김정옥

## ⑬ 산업전도교육부

지 도 / 유재일 부 장 / 최성현  
부지도 / 박동실 현정남 부 감 / 김종구 황숙영

## ⑭ 선교부

지 도 / 김영희 부 장 / 남선우  
부지도 / 유국남 부 감 / 임정우 안윤진

## ⑮ 새가정부

지 도 / 윤영탁 부 장 / 박성수  
부지도 / 김경진 부 감 / 한형식 안인현

## 4) 심방위원회

위원장 / 김원남

서 기 / 김원선

심방분과 / 장정일 최순복 김한홍 이병학

인사분과 / 김창근 구명진 김순애 마성락

교육분과 / 김하진 김연이 김은숙 홍중섭

통계분과 / 이승근 김용선 김경철 이원철

확장분과 / 남성호 김순옥 김원선 오승률

## 5) 재정위원회

위원장 / 윤종성

서 기 / 오정현

위 원 / 박치민 우기천 이승선 한경일

정봉조 문옥순 김영남

## 6)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기정

서 기 / 오진국

위 원 / 임광식 윤종성 이창업 노광현

한경일 이옥녀 안윤진 오희명 정선화

원도화

## 7) 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 송순일

위 원 / 한명옥 정석태 고병옥 박창수

이동규 김원선

## 8) 감사위원

수석위원 / 송순일

위 원 / 윤종순 정석태 고병옥 김영개

신현상 오태희

## 9) 인사위원

수석위원 / 윤종순

위 원 / 한명옥 김기정 송순일 최석주

이태규

## 10) 사무국

국 장 / 이웅선

국 원 / 이태규 오진국 정하우

## 11) 출판국

국 장 / 조현명

국 원 / 김자생 조선근 김하진 윤형철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 12) 당회장실

실 장 / 윤형철

총 무 / 이 손

## 이동 · 신임 · 사임

교회는 그동안 산업전도교육부에서 수고하여 온 박동실강도사와 옥인교회에서 대학부지도를 하던 허충욱강도사를 전임강도사로 초빙키로 결정했다. 허충욱강도사는 금년부터 대학부지도 교역자로 수고하게 된다.

교육위원회의 성경학원 부지도로 수고하던 장영사 전도사가 장년새신자부 세례반 부지도로 전임 됨에 따라 그동안 대학부 부지도로 수고하신 김경성 전도사를 성경학원 부지도로 임명했다.

또한 여성성가대의 반주자 서은숙선생이 개인사정으로 사임케 되어 그 후임에 최성희선생을 임명했 또 그동안 전도위원장으로 수고해 오신 김중석목사가 개인사정으로 우리교회를 사임하시게 됐다. 김중석목사는 그동안 우리교회의 대학·청년부를 거쳐 우리교회의 성가대지휘자로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됐으며 1978. 8. 1979. 7월까지 1년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기도 했다.

또한 출판국의 녹음실에서 수고해 오신 한영석집사와 사무국의 정재숙양이 각각 개인사정으로 사임했다.

## 1981년 - 무엇이 달라지나?

### 구역 7개지역 299구역으로

교회는 금년도에 구역운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역요원들이 구역원을 잘 보살피며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동안 5개지역의 219 구역을 7개지역의 299개 구역으로 확장했다. 이로써 각 구역담당요원의 업무가 좀 더 중차대하게 되며 구역원을 돌보는 일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금년도 지난 해와 같이 봄과 가을에 나누어 대집방을 하고 유교심방에 한층 주력하게 된다.

금년도 각 지역 담당 교역자는 다음과 같다.

- 1지구 / 이승근 김은숙
- 2지구 / 남성호 구명신
- 3지구 / 김원남 김순옥
- 4지구 / 김창근 김용선
- 5지구 / 장정일 김순애
- 6지구 / 김하진 김연이
- 7지구 / 김석원 최순복

### 구역철야·금식기도 폐지

교회는 매일 저녁 10시에 각 구역별로 교회에 모여 철야기도로 모이는 것과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들로 매일 금식기도 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 월간 총현 광고 게재

월간총현은 제작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광고 지면을 할애키로 했다. 광고주는 우리 교회내의 교인과 외부 교인도 포함한다. 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광고에 관한 문의는 전화 267-3407, 8(편집실)로 하면 된다.

### 교사의 벗 신청받아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매월 주교 교사 전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던 「교사의 벗」(월간, 교사의 벗사)의 무료 배부를 금년부터 중지하고 희망 교사에 한하여 1년에 대금 1,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교육위원회에서 보조) 배부키로 했다.

### 교회기구일부 통·폐합·신설

교회는 교회기구중 일부를 통·폐합키로 했다. 그동안 제직회 산하에 서무부와 영선부를 폐지하고 당회 산하기관중 서무국에서 그 업무를 흡수하여 통합키로 했다. 따라서 제직회는 서기·회계 및 예전·구제·봉사·미화부만 남게 됐다.

한편 전도위원회 산하에 북한선교분과를 설치, 북한선교에 관한 업무를 전담키로 하고 그 업무를 조준상강도사가 수행키로 결정했다.

### 예산관리 일원화

교회는 1981년부터 각 지회의 예산·회계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재정위원회의 관장하에 실시될 본 제도는 모든 수입을 교회 수입으로 정리한 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출 처리토록 했다. 금년에는 전도위원회, 해외복음선교회 및 교육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 주일저녁예배 5시에

교회는 1981년부터 주일예배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등으로 주일내내 교회에 있어야 하는 분들이 많아 저녁예배를 일찍 끝내고 각 지회의 회의 및 잔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녁예배 시간을 앞당겨 오후 5시로 변경했다.

### 신앙 월력 배부

교회는 총회 전도부가 발행한 1981년도 신앙월력 4,000부를 구입, 우리교회의 전 세대에 1부씩 배부했다.

### 신년예배 드려

교회는 1981년을 맞아 신년예배를 1월 1일 오전 7시, 10시 20분, 11시 50분 3차례로 나누어 드렸다.

이날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대살로니가 1장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사할 만한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신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대살로니가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는 사람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축원하셨다.

### 신년도 공동회의

교회는 1980년도 결산보고 및 198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공동회의를 지난 1월 4일 3부예배시간에 가졌다.

이 공동회의에서는 지난해 결산과 1981년도 예산안을 수정없이 통과했다.

### 건축관계 해외 견학

교회는 새성전의 골조공사가 마쳐지고 실시할 내장공사에 대비, 해외의 유명교회당 및 건축물을 시찰 견학키로 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노광현, 오진국장로와 최환집사가 시찰단으로 지난 1월 6일 출국했다.

이 시찰단은 미국, 및 유럽의 몇몇개국을 거쳐 2월 중순경 귀국할 예정이다.



## 1981년도 단기수련회

1981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1월 5일부터 실시한 단기 수련회가 지난 1월10일 모두 마쳤다.

직분 및 기능별로 실시된 단기 수련회는 연일 해당자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물아 닥친 한파에도 아랑곳 없이 모두 배우는 일에 힘썼다.

금년도 단기수련회는 우리교회의 80년대 표어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자」라는 표어 아래로 모였다.

## 동기 농어촌 전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농어촌전도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어 금년도 동기 농어촌전도를 위한 계획을 끝내고 있다.

금년은 지난 해의 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4대에 총 28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파송지역은 경남북·전남북지방으로 계획하고 있다. (1대:조준상강도사—전남 고흥군 청석교회 2대:이양우전도사—경남 양산군 금산교회 3대:박동실강도사—전북 옥구군 백석교회 4대:허중욱강도사—경북 월성군 현곡교회) 금년도 파송일은 2월 9~14일이며 전도대원 훈련은 2월 2,3일에 있게 된다.

## 지교회 교역자 좌담회

전도위원회는 1981년도의 효과적인 지교회 지원을 위해 현재 우리교회가 두고 있는 지교회의 교역자들과 전도위원회 교역자들과의 연석 좌담회를 가져 지교회의 현황과 우리 교회의 입장들을 서로 이해하

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좌담회 사회는 1981년 신임 전도위원장인 최석주장로가 담당했다.

## 군부대 전도집회

전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수) 육군 모부대 강당에서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지고 또한 집회 후에는 「사랑의 뿌리」라는 영화 상영을 하기도 했다. 이날의 결신자는 216명, 또한 12월17~19일에는 육군모부대에서 전부대원 및 군속, 지휘관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흥회를 인도했다. 부흥회에서 108명의 결신자가 나왔다. 이 집회와 부흥회는 전도위원회 유재일 목사가 강사로 수고했다.

## 총현기도원 안내

### (교통편)

####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에배후
- 매주 수요일에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 (주소) 130-02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서서

「경기도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기타)

- 침구준비
- 식사는 매식, 자취 금함

## 각 종 통 계

1980. 12. 7. (매월 첫 주 기준)

| 구 분       |         | 남       | 여     | 계      |      |       |       |       |
|-----------|---------|---------|-------|--------|------|-------|-------|-------|
| 예         | 주일날     | I 부     | 172   | 353    | 총세대수 | 3,821 |       |       |
|           |         | II 부    | 327   | 1,024  |      |       | 1,351 |       |
|           |         | III 부   | 366   | 733    |      |       | 1,099 |       |
|           |         | IV 부    | 344   | 841    |      |       | 1,185 |       |
|           |         | 계       | 1,209 | 2,951  |      |       | 4,160 |       |
| 배         | 주 일 저 녀 | 278     | 460   | 738    | 신    | 총수    |       |       |
|           | 삼 일 저 녀 | 121     | 317   | 438    |      |       |       |       |
| 주         | 일       | 어린이새신자부 | 24    | 25     | 급    | 세례    |       |       |
|           |         | 영 아 부   | 163   | 124    |      |       | 287   |       |
|           |         | 유 치 부   | 152   | 192    |      |       | 344   |       |
|           |         | 유 년 부   | 225   | 212    |      |       | 437   |       |
|           |         | 초 등 부   | 206   | 203    |      |       | 409   |       |
|           |         | 중 등 부   | 165   | 152    |      |       | 317   |       |
|           |         | 고 등 부   | 140   | 137    |      |       | 277   |       |
|           |         | 대 학 부   | 60    | 53     |      |       | 113   |       |
|           |         | 청 년 부   | 81    | 103    |      |       | 184   |       |
|           |         | 학       | 교     | 장년새신자부 |      |       | 56    | 134   |
| 장 년 부     | 32      |         |       | 264    | 296  |       |       |       |
| 노 년 부     | 31      |         |       | 104    | 135  |       |       |       |
| 산 업 교 육 부 | 16      |         |       | 98     | 114  |       |       |       |
| 선 교 부     | 27      |         |       | 73     | 100  |       |       |       |
|           |         | 새 가 정 부 | 20    | 20     | 현    | 원입    |       |       |
|           |         | 합 계     | 3,006 | 5,622  |      |       | 8,628 |       |
|           |         |         |       |        | 교인   | 남     | 3,271 |       |
|           |         |         |       |        |      | 교인    | 여     | 5,041 |
|           |         |         |       |        |      |       | 계     | 8,312 |
|           |         |         |       |        | 교인   | 남     | 1,760 |       |
|           |         |         |       |        |      | 교인    | 여     | 3,300 |
|           |         |         |       |        |      |       | 계     | 5,069 |
|           |         |         |       |        | 교인   | 남     | 495   |       |
|           |         |         |       |        |      | 교인    | 여     | 335   |
|           |         |         |       |        |      |       | 계     | 830   |
|           |         |         |       |        | 교인   | 남     | 252   |       |
|           |         |         |       |        |      | 교인    | 여     | 391   |
|           |         |         |       |        |      |       | 계     | 643   |
|           |         |         |       |        | 교인   | 남     | 755   |       |
|           |         |         |       |        |      | 교인    | 여     | 1,015 |
|           |         |         |       |        |      |       | 계     | 1,770 |

## 1월의 행사

- 4 일 제직회, 재정위원회월례회
- 5 - 10일 1981년도 단기수련회
- 9 일 교회 전체철야기도회
- 11일 남전도회월례회, 권사회월례회
- 12일 특별권찰회
- 18일 재정위원회, 해외복음선교회실행위원회  
여전도회월례회 출판국 월례회  
월간충현 1월호 발간
- 25일 구역권찰회월례회, 전도위원회월례회
- 27일 정기당회

## \* 편집하고 나서

\*...새해를 맞는 마음이 무척 바쁘다. 금년 한 해는 모두가 바쁘게 뛰며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싶다. 연초에 계속된 단기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다져지며 하나님앞에서 충성된 한해로 살 것을 결심하는 날들이 되었으리라. 이제 주어진 1981년을 살 때 진정 주님의 뜻이 살고 나의 뜻이 죽어 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새해를 맞아 각 부서의 새해 계획을 알아 보았다. 특별하게 뛰어 나는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일년의 작은 목표

들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매년 모아 질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며, 일하며,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각 부서를 모두 다루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불가능했고 특히 교육위원회 관계가 빠진 것이 섭섭하지만 다음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특히 각 개인의 새해계획을 소박하게 써 주어 모두가 같이 공감의 벽을 쌓게 해 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몇가지 특별기획된 원고가 있었지만 지면관계로 다음호로 넘기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된다.

새해에는 주안에서 강건하며 타사에 형통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 드린다.

## \*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조현명

편집위원/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 월간충현

1월호

제9권제1호

통권 제84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조현명

주간/윤형철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장로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1월18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3408



1981년도  
총현교회 당회원



당회장 / 김 장 인



서 기 / 윤 종 순



부서기 / 이 태 규



한 명 옥



황 기 성



조 현 명



김 한 훌



송 순 일



김 기 정



윤 종 성



임 광 식



최 석 주



이 동 규



오 승 룰



황 장 룰



박 창 수



이 응 선



윤 용 규



홍 중 섭



김 중 석



한 경 일



정 석 태



최 성 림



김 영 삼



이 원 철



윤 명 식



김 의 철



조 선 군



김은호



오태희



김영개



김방진



강순용



마성락



신영대



김차생



신현상



고병욱



우기전



김경철



손동운



노광현



이창업



김원선



오잔국



박치민



정하우



이병학